

2009 연세대학교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16 개막식 "이상한 나라의 X"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영 화 "3xFTM" 상영 + 관객과의 대화
오후 7시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센터

17 강 연 "젠더 버블, 젠더 트러블, 젠더 파서블"
오후 6시 30분, 논지당
한재운(한국상업적수차문화인권센터 소장)

18 폐막식 워크숍 "X가 되어, 춤출!"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변신프로젝트! 내 몸에서부터 출발하기" 오후 6시 30분, 노천극장 제2연습실
간사: 지루(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르스, 연극후진트위크 활동가)
* 워크숍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여성 참가자의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은 woolim@yonsei.ac.kr로 이력(혹은 별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메일을 보내주세요.

16~18 전 시 "만남 나는 X라고 해"
오전 10시~오후 6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전막

피어니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전화 02)2123-3845 홈페이지 web.yonsei.ac.kr/ysfem 메일 woolim@yonsei.ac.kr

2009 연세대학교 제 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주관 연세대학교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주최 피어니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YONSEI UNIVERSITY CO-OP

YONSEI
no First & no Best

“연세인에게 생활협동조합이란 ○○○다”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급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조합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폭넓은 개념의 소비자조합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협동조합 서비스



골라먹는 재미가 술술,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식당 / 매점 / 커피전문점(글로벌라운지 / 청경관 / 숯불생 / 한울생)



노트부터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까지
일동생(문구, 잡화점)



다양한 정보로 지혜가 쑥쑥...
술가생(서점) / 본동생(책사실)



멋내고, 뽕내고~, 배낭여행이 가고 싶다면...
이미용실 / 사진생 / 안경점 / 구두수선소 / 화장품점 / 생화여행사

인터넷 쇼핑물 서비스 <http://www.yonseicoop.co.kr>
원하시는 상품을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에서 구매, 주문 결제가 가능합니다.

생활협동조합
이용시간

	학기중	방학중
평 일	8:50~19:00	9:00~17:30
토요일	8:50~14:30	9:00~14:30

- 02 여기 X가 있습니다.
03 나의 성은 X입니다
06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가 얽히고 설킨 요지경 세상에 대하여
11 제11회 여성제 - 나의 성은 X다

14 X가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

- 16 '멋진 남자친구'와 '예쁜 여자친구'의 불편한 진실
19 어장 속 송사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실
22 이성애주의 양식장 속 송사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실
24 푸른 하늘을 보고 싶었던 다리발들을 위하여
27 X아, 고만을 들어줘줘
32 초식남, 그게 대체 뭐길래?
36 여성연예인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여성성

39 여성성, 남성성에 갇히지 않은 나의 욕망과 경험

- ① 나무의 이야기 ② 수영의 이야기 ③ 루의 이야기 ④ 마프의 이야기
⑤ 갈매기의 이야기 ⑥ 물의 이야기 ⑦ 파니의 이야기 ⑧ 데이나의 이야기
⑨ 아보의 이야기 ⑩ 삶의 이야기 ⑪ 안의 이야기

50 X살아남기 프로젝트 - 이 세상에 틈내기

- 51 여성주의 자기평어후원 후기 : 나의 몸, 나의 경험 - 온전히 바라보기
55 동화비틀기 ① 신데렐라 이야기 ② 백설공주 이야기
60 남성이라는 울타리를 슬며시 비껴선 어느 이의 이야기
64 X아 안녕, 내 애기 들어줘
68 3X! FTM
75 관계 상상하기, 관계 설명하기

80 기화단 후기

나의 성은
X다



gabriel moreno

여기 X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여자니까 분홍색 옷을 입게 하고
남자니까 파랑색 옷을 입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여자니까 고무줄놀이를 하고
남자니까 축구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X는 뽕박씨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인형놀이도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합니다.

"젠 여자애가 왜 차려 팔기닥이래?
남자애가 왜 그리 소심하니?
이런 말에 감하지 않는
X"

여성과 남성, 이렇게 둘로 딱 갈라놓고
서로 대립한다는 성질을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해 놓은 이 사회
이상적인 남성, 감정적인 여성?
진취적인 남성, 수동적인 여성?
이런 이분법을 벗어나면 이상하다며 발발 떠는 사회
또 이렇게 '여성스러운 여성'과 '남성스러운 남성'이
서로 배척을 느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회

그 경계를 허무는
그 규범을 비웃는
그 경계와 규범이 얼마나 웃기고 취약하고 임의적인지 보여주는
X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X의 그 무한한 가능성.
함께 X가 되어 펼쳐보지 않을까요?



www.dreamyplanet.co.kr

“응애” 하고 세상에 첫 인사를 건넸을 때, 나의 성은 X였습니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이 예측 불가 능했던 것만큼이나, 나는 어떠한 성이든 될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내 가랑이 사이를 슬쩍 살핀 후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나의 성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뒤의 일이라 편하지요. 남자가 아니니까 2번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남자화장실에 가면 안 되니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구요. 파랑색 옷을 입으면 안 되니까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축구는 남자애들 운동이니까 피구를 했구요. 비행사는 남자직업이니까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틈도 없었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지요. '여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원한다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남성' 아니면 '여성' 중의 하나로 분류하려는 성별이분법 아래에서 나의 삶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성별 역시 정해져있긴 마찬가지였죠. '공주님'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왕자님'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가정하고, 이성애 외의 다른 감정이나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이성애주의가 판치고 있었거든요. 이성애주의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온전한 '여성'이기 위해선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에게 사랑받을 만한 특징들을 두루 갖추어야

나의 성은
X입니다



만 했습니다. 여성은 더 호리호리하고 더 연약해야만 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다부진 남성이 그녀를 보호해주어야 하니까요. 여성은 더 수동적이어야 했습니다. 더 주도적인 남성이 그녀를 리더해주어야 하니까요. 이성애주의 아래에서, 성별이분법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음'과 '양'처럼 태생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것. 결국 연 사랑의 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서로를 보완해주는 특성들로 포장되고 부풀려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맞물린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속에서 나의 삶은 더욱 비좁은 통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에게 매력 없는 '여성'으로는 어디에도 얼굴을 내밀기 힘들었습니다. 남편하지 않으면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화장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승부욕을 내비쳤을 뿐인데 '여자가 왜 왜 이리 악바리같냐'고 놀려대고, 피곤해서 누웠을 뿐인데 '여자가 왜 왜 이리 조신하지 못하냐'고 혼내키지요. 일상적으로 남성의 시선으로 평가받으면서, 남성이 지켜줄 수 있을 법한 가녀린 여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이성애 구도에 맞지 않은 나의 욕구와 경험들은 모조리 잘라내고 숨겨야 했습니다. 남성과 연애를 할 때, 마냥 이끌리고 애교를 떠는 것보다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여성의 욕구들 말예요.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끌렸고, 그녀와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관계 맺고 싶었던 여성의 경험들 말예요. 내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지조차 미리 재단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판국이니 요기 요 시궁창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고작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스러운 여성'을 연기하는 것뿐일 밖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 깜짝할 사이라도 벗어나는 욕망과 손톱만큼이라도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이 더 강하게 나를 조아울수록, 오히려 나는 그 틀 안에 완전히 갇히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성-남성성'의 명령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재단하기 위해 더욱 세밀해질수록, 그 비좁은 틀니바퀴에서 핑거져 나오는 우리의 경험은 하나 둘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성은 이끌고 여성은 이끌려야만 한다는 이성연애의 규범들이 사실은 하나의 역할극임을 보여주는 부치와 펌의 연애 이야기, '하리수'의 이미지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랜스젠더가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회에서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의 복잡다단함을 보세요. 캐치볼을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신나서 우당탕 발 구르는 소리, 이른 옷을 입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싶다는 남자아이가 트리에 걸어둔 크리스마스 소원을 보세요. "넌 왜 이렇게 여성스럽지/남자답지 못하니?"라는 구박을 들었던 만큼, 여성스럽기/남자답기 위해 말투를 바꾸고 화장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했던 만큼,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은 그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삶의 모든 일분일초가 여성성-남성성의 명령에 완벽히 가워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획 자체가 별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도 완전히 포섭할 수 없는 불안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니까요. 여성/남성이라는 단 두 개의 방 바깥으로 우리가 자유로이 뛰놀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온 몸으로 증명해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별이분법을 비틀어보고 조롱하고 경계를 휘적휘적 넘나드는 나의 일상을 통해서 모든 이를 가두어버렸던 단단한 벽조차 푼, 푼 금이 가기 시작할거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의 명령에 저당잡힌 우리의 삶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오늘부터 나의 성은 X입니다. 나의 성이 일직선으로 나뉘지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 자리에 고정되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너무나 오래 여성/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서인지, 이제는 어떤 것이 나의 맨얼굴인지 맨얼굴이란 게 원래 있거나 한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고 맨 살갗으로 맞이하는 바람은, 예전보다 훨씬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만큼이나 생명력에 넘칩니다. 그래서 X가 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성/남성이라는 역할놀이에서 숨겨야만 했던 나의 수많은 경험들을 발굴하는 일이며, 답답한 승통으로만 쌓아왔던 나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목구멍 밖으로 와르르 뱉어내는 일입니다. 리더여야 할 남성도 아니고 팔로워여야 할 여성도 아닌 X와 또 다른 X가 함께 주는 춤은 처음에는 서로 발을 밟기도 하고, 엉겨주춤하니 우스워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스텝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이 없을 때야 내 안의 리듬이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주어진 역할보다는 나와 상대의 리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여기 우리의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치 챌 수 있을 것입니다. 너와 나 모두를 재단하지도 놀려버리지도 않는 관계 속에서 차르르 쏟아져 나올 무지개들! 들꽃처럼 풍요로워질 우리의 관계를 상상하며,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며, 이제 우리는 X가 되어 만납시다.

나의 성은
X입니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가 엮히고 설켜 요지경 세상에 대하여



지금부터 요지경 세상에 판치는 어불성설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시는 두 분, 둘도 없는 절친이라는 두 분, 그 이름도 망측한 "성별이분법"님과 "이성애주의"님 되시겠습니다. "성별이분법"이란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두 가지로만 나누고 그에 따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별규범을 강요함으로써 이 세상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 외에 다른 성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애주의"란 남성은 여성만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만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성정체성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요, 이 두 분의 황포는 익히 들어 알고들 계시길 겁니다. "넌 여자/남자답지 못하게 그게 뭐니!"라고 '여성성/남성성'을 교육하사 이분법적 성별규범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리셨으며, "여자가 여자랑 연애하는 게 말이 되니!"라고 이성연애만을 권장하사 이성애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관계들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고개 꺾듯이 쳐들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이지요, 두 분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생물학적 성sex"이 그 근원적인 믿음이며 그 "생물학적 성"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도 안 된다고(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천벌 받는답니다.) 하는 말씀이 그 도의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두 분을 함께 불러봅시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딱딱딱) 이렇게 붙여 놓고 보면 어색하기도 한 것이 참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별이분법은 이성애주의와 긴밀하고도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이자 증언자이며 필요충분조건이시란 말입니다. 두 분이 찰떡같이 붙어 다니시는 이유가 탄 대 있는 게 아니죠,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의 연대는 결국 이렇게 맞물려 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조아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자하는 야심찬 기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별이분법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남성은 이미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라는 성정체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성스럽기' 위해서 남편해지고 여러여려해져야 하는 이유는 '남성에게 보호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답기' 위해서 데이트비용을 지불하고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을 리드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정체성은 한 사람의 성별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남자를 안달 내게 하는 여우의 10가지 비법' / '도도한 여자를 사로잡는 10가지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더욱더 여성스러워지기/누구보다 남자다워지기 위한 팁을 나열하는 잡지의 칼럼들을 보세요. 이성애주의 하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바로 그 누구보다 성별이분법적 규범을 잘 수행하는 '여성스러운' 여성과 '남자다운' 남성이라는 사실도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성애주의와 맞물린 성별이분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봐도 그래요, 온 세상에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화장실만 허락하는 성별이분법적인 공간 구성^①은, 동성 간의 공간은 무성적이어서야 하고 이성간의 공간은 섹슈얼할 수밖에 없다는 이성애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요? 남자라면 온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하고 여자라면 설사 임금노동을 하더라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는 성별이분법적인 분업체계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정상' 가족만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정하는 이성애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별이분법적인 공간과 노동과 관계 맺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을 쥐었다 폄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뼈이 바로 오프닝에 등장하셨던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성sex"이란 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여성/남성이라는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여성/남성 둘 중 하나의 성별로 고정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달라야 하나요? 여성은 남성과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몸을 가졌나요? "원래" 그래요, ... 왜 여성은 남성만 사랑

① 제가 컴팩트 화장실 중에서 파란색 남성과 빨간색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화장실에만 유독 성별이분법적인 표시를 붙이지 않은 이유가 2개의 성으로는 구획될 수 없는 다양한 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장애인에게 부여된 무성적인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해야 하나요? 자궁을 가진 여성은 출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여성에게는 정소를 가진 남성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성은 자궁을 가졌고, 남성은 정소를 가졌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말에는 더 이상 "왜?"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생물학적 성sex"은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자, 이쯤해서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사실 "생물학적 성"은 모든 것의 '전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니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선망을 퍼뜨린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성"이란 분의 신상을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구석이 속속 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만 해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성별을 여성, 남성이라는 단 두 개의 성으로 나누는 것이 가당기나 한 말인가요? 페니스와 클리토리스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페니스라 하기에는 조그맣지만 클리토리스라고 하기에는 큰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인 모양에 맞지 않는 성기는 대부분 수술을 통해 어느 한 쪽으로 끼워 맞춰지고, 수술 결과에 따라 여성/남성 중 하나의 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고작 페니스의 유무로 성별이 결정되는 것은 또한 가당기나 한가요? 페니스 또한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무수한 장기 중의 하나일 뿐인데 말이지요. 여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센치미터 기준으로, 혹은 관례적인 짐작으로 페니스가 있는 사람 아니면 페니스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 꿈과 절망, 그야말로 모든 삶이 구획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남성이라는 sex부터가 생물학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러므로 자의적이며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분법에 맞추어 기획되고 짜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좀 더 자랄 때마다 따라붙는 여성/남성의 몸의 차이, 그러한 몸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는 성역할 규범의 차이 역시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쓰는 일이나, 운동선수가 되는 일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전제는 '남성이 원래 여성보다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해서 가족 전부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명령의 전제는 '여성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사실'과 '태생적인 차이' 역시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면 믿기 어려울까요? 하지만 뒤집어 물어봅시다.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은 것은 사실 남성은 어릴 때부터 축구, 농구, 태권도를 하도록/여성은 다소곳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앉아있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왜 여성의 장기 중 하나인 자궁에는 '모성'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남성의 장기 중 하나인 정소에는 '부성'의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는 건가요?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근육이 많기도 하고, 또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궁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살기도 하

고, 어떤 여성은 자궁이 있어도 아이와 함께 살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은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 간의 차이보다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몸' 간의 차이, '남성의 몸'과 '남성의 몸' 간의 차이가 더 크고,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는 절대적인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발표했던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얼마나 허랑했든가를 조용히 반추해보셔도 좋겠네요. 예전에는 남성의 뇌 용량이 여성보다 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능력에 약하다는 과학적 가설을 모두가 믿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뇌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또 예전에는 여성호르몬은 사람을 감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남성호르몬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과학적 가설을 모두가 믿었지만, 결국 호르몬보다는 사회에서 주입하는 성역할이 그런 차이의 원인임이 딱히 밝혀졌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학적 차이'는 절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시대에 따라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뀐 사기꾼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은 여성/남성의 차이를 태생적인 것으로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sex에 따라 반드시 여성성/남성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야한다는 허구적인 믿음까지 함께 퍼뜨립니다.

이 모든 거짓부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꺼번에 우겨 넣기 위한 두 개의 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간 개인은 반드시 이러저러한 특징을 가져야만 한다고 명령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반드시 자기와는 다른 방의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이 사회의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령하기 위해서요. 이처럼 사람을 집단화하고, 집단에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도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지배할 사람과 복종할 사람이 정확하게 나뉘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지배할지, 어떻게 지배할지도 모호해지고, 결국 지배-피지배 구도의 당연함도 의심받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무엇을 나누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를 지우느냐, 어떻게 타자화하느냐의 문제와 간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의 구도를 통해서야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면서 갖가지 열등한 특성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여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는 주체로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것은 당연해집니다. 남성은 여성을 지켜주는 존재이므로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또한 이성애주의 성별이분법





의 구도를 통해서야만 퀴어²⁾를 차별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여성을 사랑하는 남성 외의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한데 묶여진 퀴어들에게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이성애의 정상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퀴어를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성애자는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국민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퀴어에게선 박탈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퀴어를 정신병리학적 존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성애자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라면 받지 않아도 될 의심과 혐오를 퀴어에게 호모포비아란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한 가지 특징으로 환원해버리고 그 무엇과 다른 무엇의 차이를 절대화하는 것은 그 무엇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 무엇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고, 그 무엇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상황 자체가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니까요.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분법,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이쯤 되면 누가 누군지, 네가 먼 저인지 내가 먼 저인지, 나 여기있으니 너 거기있는지 이 모든 것이 헷갈릴 정도이니, 두 사극 창본들의 면면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은 확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얽혀서 우리의 삶을 가두고 비틀고 좁히고 있음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마 이것 참 뱃부터 때려잡아야 세상이 좀 환해질까 한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만, 또 두 분의 성질을 파헤치다보니 사실 그렇게 무적과워용사는 아니지만요, 보셨다시피 두 분께서 자랑해마지않는 생물학적 성 또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랬다고 믿도록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생물학적 성의 이분법적 구획이 존재하사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란 무사당연하노라 주장하는 그 꼴은 마치 달이 무엇이나 하면 달갈에서 나온 것이며 달갈이 무엇이나 하면 달에서 나온 것이노라 주장하듯 모순의 순환고리에 빠져있음이 확실해보입니다. 전제와 결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절대 정답이란 찾을 수 없는 고리 속에서 우리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제'도 자연스럽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결국 그런 '전제'를 통해 나왔다고 외치는 '결론'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일 따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 두 분의 지만한 발등을 지그시 드러 밟고, 우리는 X가 되어 사뿐히 날아나 보자구요.

by 채널~고정!, 파니

● 퀴어란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 Intersexual, Questioning)를 포함하여, 단 몇 가지로만 설명하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성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적인 이성애자의 모습에 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009년 연세대학교 제11회 여성제

4의 성은 X다

9월 16일 WED

개막식 "이상한 나라의 X" 13시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형 혹은 장난감 칼, 차마 혹은 바지, 긴 머리 혹은 짧은 머리.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 항상 정해진 길로 동이 떠날립니다. X는 여지까지 '선택' 해본 적이 없어요. 내내 물을 가득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렸고, 이제 X는 화가 납니다. 바락 뛰고 있어야 했던 그 모든 물건들을 땅에 내팽개치고, 몸에 붙은 규범들을 떼어내고, 몸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은 것들을 모두 찢어버립니다. X가 자신에게 강요되던 여성, 남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 11회 여성제가 시작됩니다!

영화 "3xFTM" 상영 + 관객과의 대화 19시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센터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우리가 물어본 이 말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하리수'라는 연예인이자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하면 대개는 수술을 마친 성전환 '여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건, 받지 않건, 호르몬 치료를 받건, 받지 않건, 성전환 남성, 성전환 여성 모두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또한 각자의 경험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이 다양하구요. 다큐멘터리 <3xFTM>은 3명의 성전환 남성, FTM(Female to Male)이 들려주는 'T - toward 혹은 transition 혹은 to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3xFTM>은 정체성 확신의 계기, 의학적 조치를 통한 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그리고 여성으로 대해졌던 과거를 자신의 삶 안에서 의미화하는 방식 등이 전혀 다른 세 명의 성전환 남성의 삶을 통해 다양한 지점에서 젠더 규범을 포집기도 하고, 그 틈새를 비집기도 합니다. <3xFTM>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들, 같이 와서 함께 봐요오우우



21대 총학생회 '일상, 율령. 11

9월 17일 THU

강연

**젠더 버블, 젠더 트러블,
젠더 파서블**

18시 30분 논지당

연사: **한채은** 한국성적소수자문
화인권센터 소장

이성애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
자면 남성은 여성만 사랑하고 여
성은 남성만 사랑하고 그 외에 다
른 성적정체성이란 있어선 안된단
고 말하는 것일 테지요. 젠더 규
범은 여성/남성의 성별정체성을
만들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들 간의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내
는 것이구요. 언뜻 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한 이성애주의와
젠더 규범, 하지만 정말 그런 걸
까요? 우리의 일상에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성애주의
와 젠더규범의 동거 충실히 해내
고 있는 있지만 이 틈새에서 저 틈
새에서 빠짐이 많은 의문들이 고
개를 쳐들지요? 나는 정말로 언
제 어디서나 '남성/성'을 사랑하
는 '여성적'인 여성, '여성/성'을
사랑하는 '남성적'인 남성이었음
까요? 아책 저책 이곳 저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겼던 한국성
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소장 한채
운님과 함께하는 강연에서 보듯
함께 모여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
기해보자구요!

9월 18일 FRI

매박식 X가 되어 춤을! 17시 중영도서관 앞 민주광장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어 오던 젠더규범에 맞추느라,
여성의 몸에, 남성의 몸에 우리의 빛나는 몸들을 우겨넣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기 X에게 여성이라는 존재도, 남성이
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들을 살
포시 드러냄으로써 여기 모인 X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과, 열
굴과 몸짓에 충실할 뿐입니다. 함께 모여 X가 되어 춤을!

워크숍 변신프로젝트!

내 몸에서부터 출발하기(몸으로 하는 연극놀이)

18시 30분 노천극장 제2연습실

간사: **자루** 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루스, 언니후테르크 활동가

여자로써 몸을 활발히 쓰거나 움직일 일은 많지 않지요. 마음
껏 큰 소리를 지를 일도 별로 없고요. 내 몸의 가능성은 항상
'여지니까 다소곳해야지'라는 제약 아래 갇혀서 움츠러들어 있
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는 언젠가부터 내 몸은 원래 이렇게
둔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내 목소리는 원래 작고, 가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몸도 운동
을 하며 몸을 흘리는 것을 상쾌하게 느낄 수 있고, 내 목소리도
마음만 먹으면 짜릿짜릿 울릴 수 있는데, 내 몸을 마음껏 쓰거
나 목소리를 마음껏 낼 기회가 별로 없었기에 늘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제 몸을 크게 움직이고, 목소리도 크
게 내보면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기로 해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발성연습을 해보면서, 내 몸을 충분히 보
고 느끼고 상대방을 따라해 보면서, 혹은 다른 인물을 연기해
보면서, 내 몸에 대해 나도 모르게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있었
던 부분들과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해나가는
시간을 가져요. 몸으로 하는 연극놀이를 통해 내 몸은 사실 내
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은, 정말 신나고 힘이 될 거예요.

준비물: 몸을 움직이기에 편한 운동복 하나면 오케이!

워크숍은 간사님과 기획단들이 참가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
도록 신청예약을 받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극상 여성참가자의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woolm@yoneiac.kr로 이름(혹은 별명)과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세요^^

9월 16일~9월 18일 삼일내내

전시 "안녕, 나는 X라고 해." 10시~18시 중영도서관 앞 민주광장 천막

X를 소개합니다

남성/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 X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나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는 성별에 따라 고정된 무수한 사회적 인식이 덧붙여지
죠. X는 이런 성별이분법에서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이제 X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X가 살기 힘든 이 세상

X에게는 성별에 갇히지 않는 무수한 욕망과 잠재력이 있지만,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분법의 숭 박하는
틀은 X를 자꾸 억누르고, X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해요. 계속해서 X의 성별을 억지로 규정하려 들고,
그에 따라 X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결정해주려 하죠. X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
다른 이들과 관계 맺는 방식,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려고 한다고요! X가 살기 너무 힘든 이
세상! 실은 X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이 세상, 살상이 파헤쳐보기로 해요.

'여성'/'남성'이 되는 길

X는 여성/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으로 나눠진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걷다보면 온갖 성별규범들이 X
의 몸에 사정없이 부딪히죠. 우리 몸을 통제하는 온갖 규범들에 직접 부딪쳐보며 걸어봅시다. 사소하게
지나왔던 규범들이 우리를 얼마나 갑갑한 틀에 가두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X살아남기 프로젝트

이 갑갑한 세상, X가,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성별은 여성/남
성 단 2개뿐이며 이 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성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
는 것만이 정상이라는, 이 모든 헛소리들을 뛰어넘는 씩씩한 상상들이 펼쳐집니다. 그 무수한 상상력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 X도 태어났을 때처럼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겠죠.

X아 파이팅!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픈 X를 응원하는 말들, X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공에 써주세요. 형형색
색의 빛깔을 가진 공들이 투명한 상자를 채워갈수록 다양한 빛으로 이뤄진 X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단
니다!



X가 살기 힘든 이 세상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사각형 나라에 동그라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동그라미는 마냥 즐겁게 구르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동그라미가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사각형 나라 안에서의 동그라미는 이상한 눈초리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각형 나라에는 직사각형 부류와 정사각형 부류가 있었어요. 동그라미는 정원이어서 굳이 사각형 나라의 기준에 따라 나누자면 정사각형에 가까웠지요. 동그라미는 정사각형은 아니었지만 그 2가지 부류 어느 한 쪽에는 속해야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정사각형은 마구마구 굴러다니면 안 되었어요. 정사각형이 굴러다니는 것은 정사각형답지 않은 품위 없는 행동이고, 또한 정사각형의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르는 것은 금해야 할 행동이었죠. 동그라미는 드넓은 운동장을 굴러다니고 싶었지만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 꼭 참아야 했답니다. 이론만이 아니었지요. 90도의 각과 선분이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는 먹을 것도 줄이고, 매일매일 정사각형 틀에 한 시간씩 몸을 끼워 넣고 있었으며, 겨우겨우 선분이 만들어지면 선분 굵기가 일정하도록 사포로 잘 다듬어야만 했어요.

동그라미는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고, 싫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예쁜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동그라미는 취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순간부터 동그라미는 사각형 TV에 나오는 멋진 직사각형들과 사각형 잡지에 나오는 예쁜 정사각형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들처럼 되고 싶어. 다들 저렇게 되어야 하는걸.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동그라미는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었죠. 동그라미가 사는 동네에 짧은 선분으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니는 직사각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인 친구도 별로 없는데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 혀 차는 소리만 내뿜을 뿐이었어요. 직사각형답게 걸으려면 긴 선분 쪽으로 땅을 디어야 하는 것이 사각형 나라의 정상인데 그 아인 짧은 선분 쪽으로 걸으니까요.

정상이 아닌 것은 이것 말고도 많았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을 좋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성장환경에 문제가 있는 도형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꼭 보면 굴러다니는 정사각형이나 짧은 선분으로 걷는 직사각형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들은 정상적으로 지내야 할 정사각형성이나 직사각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천상 정사각형이네, 넌 역시 진짜 직사각형이야.'라는 말을 향해서 동그라미는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정성껏 사포질을 하고 각을 유지하며 걷는 연습을 하지요. 네모난 TV와 잡지와 컴퓨터와 어른들의, 모두가 당연히 사각형일 것이라는, 누구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라면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성/정사각형다움, 직사각형성/직사각형다움을 지닌다는 말들 속에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사각형 나라가 너무 이상한가요? 어색한가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무척이나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여성, '정상적인' 남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동그라미보다 더 많은 사포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자면 당연히, 자연스레 '여성성'을 지니고, 남자면 당연히, 자연스레 '남성성'을 지닌다더니 다들 '여성스러워' / '남성스러워' 자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여성다운' / '남성다운' 역할이라 명명된 행동 아래 '꼭 남자&여자 = 연애 → 결혼'이라는 단조롭기 짝이 없는 돌림노래 같은 관계의 모습들은 또 어떻구요? 자, 이제는 낯선 타인에게서 익숙한 누군가의 향기를 감지해 내기보다 익숙한 우리 일상에서 낯선(바늘구멍) 같이 비좁은 여러 잣대에서 배제 당했기 때문에 낯선 것이 되어버린 향기에 풍긋풍긋 후각을 열어젖혀 보자구요.

‘멋진 남자친구’와 ‘예쁜 여자친구’의 불편한 진실



여기,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멋있는 남자의 친구의 ‘예쁜 여자친구’는 ‘꼭 빠진 매끈한 다리에 누구보다 잘 목한 허리’를 가졌습니다.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고 긴 생머리는 얼마나 윤기가 넘치는지요. 게다가 하루 종일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데이트를 해도 다리가 아프다는 내색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멋있는 남자친구’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면 그만이지요.

멋있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일인당 만원에 육박하는 밥값을 내라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먹는 밥 한끼보다 바싼 커피값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친구를 위한 잔대 아까우면 안되죠. 멋있는 남자친구는 멋있만원짜리 커를링도 아무렇지 않게 맞춥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크한 미소와 함께 자랑할건데 돈이 아까울 리가 없죠. 멋있는 남자친구는 7-8만 원에 달하는 밥값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끔씩 분위기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멋있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있는 시간 후 여자친구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스킨십을 시작합니다. 멋있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여자친구는 수줍게 끌려가 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멋있는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여자친구를 불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멋있는 남자친구의 몫이지요. 예쁜 여자친구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종 일관 자리에서 웃으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 적절한 때에 맛장구를 쳐주는 것 만이 그녀의 일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능력치’를 드러내는 다른 장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또 다른 날, 멋있는 남자친구는 술자리에서 즐겁게 놀던 여자친구를 불러내 ‘여자라면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고 멋있게 나무라며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혹은 집 앞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길 모르는 여자친구를 나무라면 그런 나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은 자신 같은 멋진 남자 친구라는 충고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진한 키스정도는 나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멋있는 남자친구니까요. 멋있는 남자친구는 가끔 자신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여자친구를 불러내어 강도 높은 스킨십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때 이유를 물어서는 안돼요. 멋있는 남자친구의 아픔이 어떤 건지 듣지 않아도 알아 채야 하는 그녀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멋진 남자친구의 기분이 나쁘면 달래주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이제, 보이나요? 우리들의 진실이 녹아있는 이 글에 숨겨진 구조가. 이 글은 철저하게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성과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 의 이분법 구조를 두고 쓰여진 글입니다. ‘멋진 남자친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 많은 남자친구’로 표현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충실히 따르는 연인들은 못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부러움을 잔뜩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성연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각본을 따라가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봅시다. 이런 연애를 하면 행복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가요? 이런 규범들을 따르면 즐겁고 행복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저런 ‘예쁜 여자친구’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예쁜 여자친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열심히 단장해보도 ‘예쁜’ 얼굴은 되지 않더군요. 게다가 나도 말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가만히 앉아 심심하지 않은 척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건 또 얼마나 좀이 쑤는 일이던가요. 굽 높은 구두 밑에 발이 쏠려 물집이 잡혀도 웃으면서 걷는 것은 또 얼마나 고역이던가요. 나는 오늘 피곤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고만 싶은데 끝도 없이 내 몸을 더듬는 이 손은 얼마나 짜증이 나던가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서서 이야기한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는 남자사람 보지 않지만 나와 이성에게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친구’라는 말이 나의 남성 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하면 지금, 남성이지만 나와 연인관계가 아닌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남자사람’은 끝없이 도대체 무엇을 사주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투덜댁니다. 이래저래 대화를 해 선물을 골랐습니다. 선물을 사며 이 ‘남자사람’은 ‘돈이 왜이리 많이 드냐, 나중에는 내가 이런 정성을 들일 것 같냐’며 투덜투덜거립니다. 다른 ‘남자사람’은 사건지 삼백일인데 이제 어떻게 쟁겨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투덜거립니다. 같이 장선구를 사러 갔는데 자기 눈엔 다 똑같아 보인다고 상점을 몇 바퀴고 돌니다. 물건들이 왜이리 비싸냐며 여자에게는 돈이 많이 든다고 입을 비죽 내밅니다. 또 다른 ‘남자사람’은 이제 해줄 이벤트도 떨어져 새로 해줄 이벤트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다며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연애라는데 고작 ‘선물’과 ‘데이트 코스’로 왜 그리도 머리를 쥐어 뜯어야 할까요? 좋아하면 이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더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또한 이 사람이 무얼 해 주든 그게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기뻐 하며 받아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멋진 남자친구'와 '예쁜 여자친구'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나요? 연애하는 둘이 좋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했던 건가요?

연애를 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말에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언들은 고맙기도 하지만, 어떤 조언들은 참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달갑지 않은 조언들에는 '남자라면 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 라던가 '남자라면 데려다주는게 당연하다' 라던가 '여자가 너무 말이 많으면 못쓴다' 라던가 '남자친구 보기 민망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는게 있겠지요. 이런 말들은 '우리'를 향한 조언의 탈을 썼을 뿐, '남자'니까 당연히 이래야 하고, '여자'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규범'이자 '강요'입니다.

머리를 쥐어 뜯게 하는 '선물' 말고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문단에서 은근히 언급했던 '스킨십'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스킨십의 속도'이겠네요. 주변의 이야기들을 한 꺼풀 들춰보면 이 '스킨십'으로 인한 마찰들이 은근히 많지요. 대개는 '남자친구가 너무 진도를 빨리 빼려 해서 여자친구가 제지를 했다' 정도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의 이야기는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일방적인 상황만이 가득하네요.

당신은 이제, 이성연애 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건네는 것이 도식화 되어가는 것이 보이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건네는 것은 금전적 지원이고, 여성이 건네는 것은 자신의 성애화된 모습입니다. 성별 권력관계가 매우 견고한 이 사회에서, 이런 식의 교환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마 '멋진 남자친구'는 자신이 이 선물을 고르느라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그런 노력들까지 감안해달라 하겠죠. '나는 이런 각고의 수고를 하여 너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인가요? 이게 모두가 바라고 있던 '행복한 연애'의 모습이었던가요?

'연애'라는 관계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새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듯, 그런 사람들이 맺어가는 관계 또한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기에 획일화된 연애 각본을 만들어 내고, 마치 그것을 이상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즉 '이성애자 남성과 이성애자 여성'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남성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이 아름다운 외모를 기반으로 한 성애화된 모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각본을 이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요되는 각본과 설정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이 각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관계 맺기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이런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by 이제는 온전히 행복하고 자유로울 '우리'를 바라며, 삶



어장 속 송사리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진실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언어가 애인만을 의미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성이 다른 친구를 지칭하는 어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친구라는 단어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 단어는 아직 순수한 10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도서관 같이 다니고 같이 시험공부 하며 학업에 함께 힘쓰는 사이로 통하고 있지요. 학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둘은 절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언젠가 둘이 수줍음에 얼굴 붉히며 '영화가 사실은 나 너를 좋아했어. 철수야 나도 널 좋아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는 냄새를 풍깁니다. 결국에는 철수와 영화가 애인으로 발전하리라고 가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이 다른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친한 남자(혹은 여자)'이고 근데 우리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라는 길고 복잡한 단어덩어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한국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동성의 친구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성이 다른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성이 다른 친한 친구라는 개념조차 사라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가 등장한 해성 같은 단어가 있죠. 남자사람, 여자사람. 연애감정 쪽 뻥 제법 켜놓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대중의 지

지를 받는 단어가 아니군요. 지지를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인지도 자체가 바닥입니다만 앞으로 이 글에서 '친한 남자(혹은 여자)'이고 근대 우리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를 남자사람 혹은 여자사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성이 다른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 사라진 것이 매우 슬프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왜 슬프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는 동성애 한정된다는 생각은 이성간의 관계는 언제나 기필코 불림없이 필연적으로 연애관계로 발전한다는 이성애주의에 근거합니다. 이성애주의는 성애적 관계는 이성관계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동성간의 관계를 무성애적 관계로 못박고 모든 남녀를 잠재적 성애적 관계로 간주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양하게 맺어지는 관계를 이성애주의는 연애와 연애아님 두 가지로 재단해버립니다. 가능성의 말살이군요. 이성애주의는 연인인 남녀와 '연인이 아닌 그냥 아는 남녀' 두 가지 가능성만 살려둡니다. 따라서 아직 친구 사이로 지내는 남자사람과 여자사람은 연인관계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하는 진행형인 관계입니다. 남녀가 아는 사이에서 탈피하여 연인관계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중도포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인과 '그냥 아는 남녀'의 중간은 없으니까요.

이성간의 친구관계가 연인관계의 이전 단계로 인식되는 이상,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남녀가 '우린 그냥 친한 친구 사이야' 라고 말해도 이성애주의는 이 말을 다음처럼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린 나중에 연인이 되기 위해 가깝게 지내는 사이야.' 이성애주의는 60억 세계 인구를 남녀로만 반토막 하더니 30억쯤 되는 사람은 너와 성이 다르니까 친구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왜? 이성애와 친구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성간에 맺은 친구관계는 반드시 연애관계로 발전해야 하니까. 만약 두 남녀가 연애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재미있고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 곁에 있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나와 성이 다르다면 오래 곁에 두고 가까이 사귀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사람/여자사람은 없고 남자친구/여자친구만 존재하는 현실, 슬프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성친구의 부재 속에서 우리네 인간 관계에 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장관리. 최근 급부상한 신조어입니다. 보통 어장관리란 한 사람이 여러 이성에게 '나 너랑 연애하고 싶음'이라는 은근은근한 메시지를 던지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 바로 건져서 먹을 수 있는 양식장의 물고기마냥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냉큼 잡아서 애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장관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장관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장관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해 둘시다.

어장관리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밥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사귀더라. 난 그 사람 어장의 한 마리 송사리였어.' 이런, 함께 밥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할 정도로 둘이 가까운 사이였는데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셨군요. 분명히 당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 너랑 연애하고 싶음'이라는 은근은근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았는데 말이죠. 마음 풀어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고 그게 사실상 데이트나 마찬가지인데, 남녀 사이에 그 정도까지 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다니, 당신을 그저 놓치긴 아깝고 갖기엔 시시한 사람으로 대했군요. 자기가 뭔데 당신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한단..... 혹시 송사리씨, 이런 위로 받기를 바랬나요? 송사리씨, 혹시 혼자서 둘의 관계를 연애 준비과정으로 넘겨줬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딱 준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상대방은 당신을 그냥 친한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오오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 분명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솔로탈출이구나!' 라고 들떠있었던만 알고 보니 난 상대방의 연애 대상이 아니라서 실망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송사리 여러분, 이성을 무조건 당신의 연애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성애주의의 농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던 사람을 어장관리 혐의를 씌워서 매도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어장관리라는 단어는 이성간의 우정을 송두리째 집어 삼켰습니다. 개인이 이성과 친구 사이로 지내려고 노력해도 사회는 그 관계를 어장관리로 매도해버립니다.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귀는 법이 되고 싶어도 어장관리로 낙인 찍히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남녀의 관계가 연인이 아니면 그냥 아는 사이로 끝나는 점에서 어장관리라는 언어는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이성애주의를 보여주는 단어로군요. 이성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수 많은 송사리씨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장 속에서 파닥댈 것이며, 수 많은 어장관리 용의자들은 친한 남자사람/여자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나는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내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과 친구하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오로지 성애관계와 무성애관계로 나누는 이성애주의를 거부합니다.

by 마른 하늘을 달리는 기린





이성애주의 양식장 속 송사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실

애인이란 게 (여성의) 남자친구, (남성의) 여자친구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된 이후로 우리는 성이 같은 애인을 지칭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한 단어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우리는 동성연애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대학에서 만난 선배가 "연애는 해봤어?"라고 물을 때 그 말엔 "동성연애가 아닌 이성"연애는 해봤어?"라는 (팔호)가 숨겨져 있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남자친구는 생겼니?" 물을 때 그 말엔 "너 (단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연애하는 사이인) 남자친구는 생겼니?"라는 (팔호)가 숨겨져 있지요. 아니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그 (팔호)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의 내용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팔호) 안을 힘들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성애주의의 양식장이니까요. 이곳의 모든 이들은 이성 간에만 성애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성 간이 아닌 동성 간의 관계는 무성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이성애주의 양식장에서 남들과 다른 (팔호)를 사용하는 송사리는 즉각 퇴출입니다. 대학에서 만난 선배가 "이성"연애는 해봤어?"라고 묻는 데 내가 "이성연애가 아닌 동성연애는 해봤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진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선배가 "오~오, 어디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라고 물어보려고, 나는 "아, ~~동성~~여고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쾅! (팔호)와 [팔호]의 충돌! 하지만 여자가 여자랑 연애한다고 하면 다가를 혐오, 경멸, 폭력 속에서, 욕 그 숨 막히는 이성애주의 속에서, 어떤 (팔호)는 사라지고 어떤 (팔호)만 억척스럽게 드러붙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수습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제한합니다. 세상에 흔해 빠진 게 이성애자이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석달 열흘 머리 싸매고 고민한 이성애자를 찾기가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성애주의에 맞지 않는 경험은 모두 잘리고, 지워지고, 이성애주의에 적합한 (팔호) 속으로 재편되는 여기 양식장에서는 이성애주의자만 무리무리 살 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동성 간의 관계란 언제나 무성적입니다. 이곳에서 같은 성끼리의 섹슈얼한 관계라는 것은 용납되지도 않을뿐더러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영화가 어떤 사람과

매일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심심할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의 등에 기대어 운다고 합시다. 자, 영화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따위 성의 없는 설명만 듣고 둘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천만요. 이성애주의에서는 영화와 그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은밀한 사연을 가졌는지, 얼마나 멋진 대화를 나눴는지, 어느 저녁 연가 주황색깔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런 건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오로지 하나, 그 사람의 성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이지만 알면 이 복잡한 관계망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니깐요. 영화의 어떤 사람이 미화라면 그건 '단팍친구'가 되고요, 철수라면 그건 '애인'이 되고요, 짝라잔! 이 얼마나 명쾌하고 무식한 교통신리란 말입니까!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동성인 사람들은 무성적인 행동만 하도록 명령합니다. 공간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동성인 사람들만 있다는 조건만 성립되면 그 곳은 공적인 공간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공간이며, 섹슈얼한 의미는 눈곱만큼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화장실도, 공공목욕탕도, 수영장 탈의실도 모두 그렇잖아요. 공간을 성별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모든 사람이 여성/남성 중 하나를 택하여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같은 성만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는 식이잖아요. 거기엔 무성적인 공간이므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든 샤워를 하든 뭘 하든 아무런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동성 간의 공간에서는 어떤 섹슈얼한 기운도 상상하지 않는 이성애자로 간주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동성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결말은 '우정' 밖에 없어 보이고 언제나 '우정' 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드라마에서도 동성친구란 것은 별 비중도 없지만 꼭 등장하여, 결국은 주인공의 이성연애를 조언하고 복돋우기 위한 역할만 하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동성 간에 '우정'이 아닌 감정이나 관계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유달리 친한 소녀 둘에게 "너네 레즈나?"라는 말을 농담으로 던지고 사이좋게 하하호호 웃으며 레즈비언 관계를 연상시키는 모든 감정을 짜그리 비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동성 간에 '우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간, 시간, 기억은 존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성 간에 섹슈얼한 행동은 아예 섹슈얼한 것으로 인지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뿐더러, 중고대학생의 동성연애는 '우정을 착각한 것'으로 매도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은 양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애주의에 맞지 않는 경험은 모두 잘리고, 지워지고, 조각내어지고 결국 이 양식장에 어울리는 무늬만 가질 수 있도록 양식되어 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좁은 양식장에서 만날 똑같은 사료만 받아먹는 삶은 아닐 겁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보지요. 거기서 그 드넓은 해를 누비며 만나는 수천만가지 생물과 인사하고 키스하고 해염치보지요. 마주치는 무수한 인연들에 (이성)연애, (동성)친구라는 팔호는 때어 버리고 파도만큼이나 역동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은 새로운 당신의 가능성을 또한 열어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미리 정해져있는 각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실넘실 해안을 넘나들 때면 우리의 삶도 좀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질 겁니다. 이게 내가 믿는 진실이야요.

by 기린 나도 같이 달릴래 파니

푸른 하늘을 보고 싶었던 다리털들을 위 하 여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살 좀 빼라.'
'옷이 그게 뭐야? 넌 치마는 안 입니?'

'여성'으로 살면서 이런 말들을 듣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무슨 인사치레처럼 듣기도 하는 말들이다. 여자라면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입어야 하고 등등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해주고, 안 하면 하라고 '친절하게도' 종종 일깨워준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아마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로는, 그냥 그렇게 해야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일 것이다.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여자처럼 보이니까! 여자니까, 여자처럼 보이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거겠지.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그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제모가 먼저 떠오른다. 현재 사회에서 털은 남성성으로 인식된다. (중고등학교 때 이차성징이 시작되면~ 남자는 털이 나고 근육이 발달하고~ 여자는 가슴이 나오고 골극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여자에게는 털이 안 나냐? 그게 아닌데도, 여성에게도 자연스럽게 털이 나는데도(얼마나 나느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각양각색), 털은 여성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어 버리니, 여성에게 털은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여성스러운 매끈한 다리'를 위해서는 다리를 제모해야 한다. 팔다리도 제모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제모해야 하는 곳은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지 않는 여성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서는 여자는 원래! 겨드랑이 털이 안 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볼 수 있다. 털 없는 여성들만 보다보니, 정말로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여성에게는 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원래'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이다.

여성스러워 보이려면 화장도 해야 한다. 심지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예의상'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듣는다. 여자라면 남들에게 여성스럽게 가꾼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거의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화장을 한다고 하면, 뿐만 아니라 얼굴에 앵두 같은 입술 등 더 여리고 순수한 이미지를 연출하길 바란다. 진한 눈화장이나 너무 새빨간 입술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화장을 통해 풍기는 이미지가 기준에 맞는 여성스러움이 아니면 '세 보인다', '짜 보인다'와 같은 단어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십상이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를 가지고도 이기적이라 소리칠 한다. 여자라면 여성스러운 S라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말라서 남성에게 의지해야 할 것 같고, 남성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몸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엉덩이 등은 색시해보여서 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몸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S라인이 이상적인 여성의 몸이 되어 버렸고, 여성들은 그 여성스러운 몸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져야 하지만, 가슴과 엉덩이는 나와야 한다. 만약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고 하는 경우, 근육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근육은 여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운동은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의미하는 것일 뿐,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요구들은 매우 모순적이고 맞추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자라면, 여성스러워야 하니까.

여성스러워지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보면, 네일 케어나 피부 관리도 신경 써서 받아줘야 더 여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방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가방은 백팩이 아니라 한쪽으로 어깨에 매는 가방이다. 여자라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하는 각종 화장품들을 넣고 책도 넣으면 가방이 꽤나 무거울 텐데, 다 상관없고 무거운 티 내지 말고 반드시 한쪽 어깨에 매는 가방을 써야 한다. 거기다가 알(종아리 근육) 없는 다리를 유지하며 토각토각 예쁜 하이힐까지 신어야 한다. 하이힐을 오랫동안 신으면 발과 다리, 아니 온몸이 아프기까지 하지만, 그런 것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 발뒤꿈치가 까지는 것 따위는 여성스러워지기 위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다 '난 원래 이렇게 여성스러웠어요, 별다른 노력하지 않았어요'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말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몸이 힘들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 여성스럽게 방긋방긋 웃어주면 10점 만점에 10점이 될법하다. 와우!

이렇게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든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왜 많은 여성들이 여성스러워지려고 하는 걸까? 이 노력들을 하면 무엇이 좋기에?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여성스러워 보이려는 노력이 즐겁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잘 수행해내면 개인적으로 만족을 얻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보상이 생긴다. 이상적인 여성상에 잘 맞는 여성일수록 사회에서 더 발언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쁜 여성'이 하는 말에 사람들은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면접을 볼 때에도 여성



이면 여성스러움을 갖추고 있어야 더 좋은 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여성은 꼭 치마정장에 올백을 하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게 윗대거리로 계신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스럽고 정숙한 차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성스러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여성은, 사회에서 이상한 여성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스러움을 갖추면 받게 되는 사회적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스모키화장을 하고 가는 여성을 상상할 수 있나?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스모키화장은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화장이 아니다. 보통 스모키화장을 하면 순수하고 청순해보이기 보다는 드세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말 똑부러지게 하고 남에게 쉽게 굽힐 것 같지 않은 모습은 여성스러운 것이 아니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자는 '드세보인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된다. 그리고 면접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난 여자애가 왜 그리고 다니냐는 은근한 비난조의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여성들 스스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을 내면화하여,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면서 이상적인 여성상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여성적으로 보이게 되면 사회적인 보상이 따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화장을 해도 여리고 순수한 이미지, 즉 더럽혀지지 않은/아직 건드리지지 않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이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 스

스로도 이런 이미지에 맞추려고 하게 되고, 다른 여성들을 볼 때도 그런 이미지에 맞는지를 신경 쓰며 보게 된다. 이 사회는 여성이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여성도 남성적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온갖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 몸을 꺾고 다듬으며 변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이 여성스러운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성스러워 보여야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태클을 덜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원래부터 여성스러웠던 것처럼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선을 내면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이건 정말 부당하다. 자신의 몸을 계속 이 사회의 남성적인 시선에 따라서 바꾸고 변형해야 한다. 게다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순적이고 불가능하고 끝이 없다. 여성이라면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그 말, 사실은 정말 억지인 그 말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지켜온 노력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에 하이리!! 여성스럽지 않은 여성들은 자기관리를 안 한 거라고 하면서 사회적 억압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것들에도 하이리!! 언젠가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by 라임

wanna be

누구든지 '~하고픈', 혹은 '~되고픈' 것이 있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가짓수도 많을 거야.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여성에게 허용된 몸이 다양한 사회가 얼마나 되겠느냐는...)가 허락한 '몸에 대한 욕망' 만은 어찌 그렇지 않은 듯해. 각종 언론매체들부터 시작해서 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붙어있는 광고포스터, 쇼윈도의 마네킹, 바비 인형, 심지어 노래가사까지 시크한 표정으로 '자, 이거야. 나들이 선물해도 되는 몸. 후훗'이라며 아침에 일어나 쓰러져 잠들 때까지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그들은 기준에 맞춰 잘 꺾인 몸을 권장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람다움'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어. 그들이 열심히 전파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란 다음과 같았다.

S라인, V라인, U라인, T라인, M라인, Y라인, X라인, W라인¹⁾ 등의 각종 '명품' 라인들을 현실화한 몸으로서 H라인, I라인, D라인, A라인, O라인²⁾ 등의 각종 '하자' 라인들은 타파한 몸. 큰

X야, 고민을 들어줘줘줘!

'꼭 지금처럼만' 무력무력 자라
대학교 졸업반이 된 미래의 X에게



① S라인 옆에서 볼 때 가슴과 엉덩이가 볼록해 일직선의 S를 연상시키는 전신라인 / V라인 가슴만 혁신 혹은 골반 배지를 입었을 때 마치 위로 골반 뼈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V자 모양의 복근이 배를 쳐서하고 탄력 있어 보이기 하는 부위 / U라인 몸이 한치 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자 연예인들의 때때로 윗몸에서 생긴 라인으로 윗몸부터 앞 남매, 싹뻗은 허벅지 끝로 이어지는 몸에 적당한 근육이 붙은 곡선인 몸 / T라인 여성의 경우, 이마, 코, 턱이 평면적이어서 옆으로 볼 때는 라인, 남성의 경우, 배꼽이 곧게 뻗은 상태로 복선과 배꼽 주위에 불필요한 지방이 없고 근육 있는 가슴살이 만드는 라인 / M라인 여성의 경우, 매끈한 어깨선과 V자 모양의 남다른 배를 탄력 있는 가슴 근육으로 이어지는 라인 / 남성의 경우, 배꼽에서 어깨, 근육질 가슴을 잇는 라인 / Y라인 가슴살이 깊게 파여 쳐서함과 풍만함이 드러나는 여성의 가슴 라인 / X라인 탄력 있는 팔라인 / W라인 가슴부터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떨어지는 라인, 싹뻗은 허벅지 들어간 허리라인 강조

② H, O라인 신체 굴곡이 전혀 없어 여성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입지형 몸매 / D라인 복부비만 / A라인 최소한 상체에 비해 지나치게 풍만한 하체를 가진 하체비만형 / I라인 전체적인 몸매 라인이 통그렇게 타탄형을 그리는 몸



눈, 오목한 코, 도톰한 입술, 뒤편 퍼지지 않고 가운데가 둥그스름한 이마, 하얗고 잡티 없는 피부, 넓거나 좁지 않은 미간을 갖춘 얼굴. 얼굴의 경우, 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자연스러워' 있어야 욕 먹지 않아, 인생이 굴곡 없이 평탄하면 인생의 스펀이 좀 있을까 몰라도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얼굴이든 몸매든 굴곡 없이 평탄하면... 그냥 '하자' 일 뿐이란다.

근데 말이야, 사람들이 이 모든 라인을 정말 다 풀어볼까? 그리고 누가 이 많은 조건들을 실제로 다 갖추려 하겠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컴퓨터의 하드, cpu, 그래픽 카드도 아니고, 이 많은 기준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침수 대기는 게 어디 쉽겠니.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나리라구. 인터넷을 보니 연예인들은 아주 부위별로 분석해 두었더라... 알파벳 라인 즉 적어놓고 운동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글쓴이도 여럿 있더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개념 혹은 기준의 등장 자체가 또 하나의 허구적 이미지 - 그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어, 있다고 해도 그 이미지에 맞춰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해 - 를 만들어 내면서 여성의 몸을 매우 세밀하고 세세하게 치밀하게 통제하는 틀을 만들어 낸다니까? 그 틀은 감옥은 아니지만 이미지화 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스스로 몸을 감옥에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얼마나 우아하니? 무식하게 정조 대나 코르셋, 전축에 가두지 않고도 'wanna be'라는 산뜻한 이름으로 '효율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으니. 게다가 이러한 미적 기준을 제시한 말들 뒤에는 꼭 wanna be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화장품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코스, 바르고 먹는 약 등을 제시하지. 여성의 몸은 성별권력 하에 행해지는 관리의 대상에다가 자본이 타겟 삼은 소비 대상까지 된 셈이야.

어쨌든 우리(?)의 'wanna be'는 알파벳으로 모두 설명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간단(?)명료하며 꽤 익숙한 것들이야. 어쩌나 익숙한지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을 속삭이는 소라들이 주위에 널리고 널리다 못해 천지벽까지로 널부러져 있는 모습에 미운 것이 들었을 정도지. 그것들과 동거해온지도 어언 23년.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진리니라'며 꾸준한 세월동안 내 앞에 출몰하던 아름다움의 기준들은 칼라콜한 이미지가 되어 머리 안으로 후두둑 떨어졌어. 그래서 나의 'wanna be'도 소위 명품 라인들이 그득한 칼라콜 이미지가 되었지만 그런 칼라콜한 이미지를 꿈꿀수록 나의 몸은 흑백으로만 채워졌어. 명품 아니면 하자, 입체 아니면 평면만 존재할 뿐이니까.

모순된 욕망의 전쟁터, 욕망 vs 욕망

입적이 조성모는 다음과 같은 말(정확히 말하면 노래가사)을 한 적이 있어. '내 속엔 내가 너 무도 떨어져 당신의 실 곳 없네.'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실 곳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 곳도 없단다. 내 코가 석자.

나는 다채로운 몸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다채로운 몸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하나의 틀에 맞춰진 몸만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들 속에서 벗어나, 틀 없이 기준 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다채로운처럼 우리의 몸에도 그러한 다채로움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어. 작은 눈도, 굵은 팔다리도, 굵슬거리는 머리카락도 모두 '나'임을 받아들이는 데 괴로움이 없기를.....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휙 하고 지나가던 생각조각기가 날이 선 질문을 하지 뭐니. 너의 욕망이 그렇게까지 다채로워? 넌 니가 그렇게나 다른 욕망을 지닌 것 같아? 아니, 난 이제야 겨우 틈새적인 욕망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야. 사실 상상도 잘 되지 않아. '여성적'인 몸의 고백에서 탈피한 몸, '남성적'인 몸의 고백에서 탈피한 몸.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난 고작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얻게 된 셈이야. 그 가능성도 여성주의를 접하고 나서 겨우 얻게 된 거란다.

나의 문제는 '바라고 있다'는 점이야. 그저 바라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바람(wish)이 나를 흔들면 나는 그 바람(wish)의 바람(wind)에 휘이휘이 흔들려.

거울을 보며 묻지. 너는 어떤 몸이 되고 싶은데? 응, 머리카락이 직모였으면 좋겠어. 술도 적당히 많고, 눈이 컸으면 좋겠어, 속눈썹도 길고 풍성하구 말이지. 얼굴이 작았으면 좋겠어. 계란형에 턱이 V라인이면 더 좋지. 콧날도 오목하고, 입술도 두껍거나 얇지도 않고 도톰하고, 피부가 희고 잡티가 없었으면 좋겠어. 잔털도 없구. 팔뚝이 얇았으면 좋겠어, 허리가 가늘었으면 좋겠어. 가슴은 좀 나오고 말이지. 다리도 전체적으로 가늘었으면 좋겠어. 휘지 않고 길면 좋겠고 허벅지에는 살이 딱 보기 좋게 약간만 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면 좋겠어? 응. 근데 말이지 팔, 다리, 허리 다 가늘면 힘이 별로 없어.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만약 '또' 다시 그 놈이 날 잡아당기면 '또' 꼭 주저앉을테고, 분명히 한 손으로 어깨를 휘감고 있는데도 '또' 나는 두 손을 써도 못 때어내겠지. 흥. 그리고 말이지, 내가 되고 싶은 몸이 되려면 전신성형을 해도 될까말까하구.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 그리고 시간은 또 어디서 난다구... 아니, 것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게나 별 볼일 없고, 그렇게나 가치가 없는거야?

혼자서 부들부들 거리며 화를 내면 2명의 내가 대화를 해. 해방을 꿈꾸는 나와 '오늘날 중에 니가 제일 못남이구나', '화장하고 렌즈 끼면 너도 좀 괜찮아 질거야'그래, 지금 상태는 괜찮지 않다는 이야기겠지'와 같은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 나...



아니야, 그건 아니지. 여성의 몸은 늘 통제 대상이었어. 오오, 아름답소. 라는 말로 칭송하면서 그저 관리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 통제에 따르는 여성에게는 나름의 보상을, 따르지 않는 여성에게는 처벌을 판을 붙이고 소위 말하는 그 영물라인들은 누구의 사선으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니? 가능하고 작은 몸을 미(美)로 정의내리며 그러한 몸의 연약함, 나약함 등의 이미지를 싸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특정 신체 부위에는 섹슈얼리티적 이미지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전체적으로 작고 마르되 그 부분만은 풍만하라 명령하는 그 기준 말이야. 그래, 니가 눈 딱 감고 그 기준들에 널 잘 끼워 맞췄다 치자. 사회는 보상이라는 작용을 해왔지 여전히 여성을 외모로 치환하는 습관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미녀는 괴로워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외모만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지만 그건 여전히 니가 주체가 아닌 상태에서야.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객체로서 독립·주체·적극·능동적일 수가 없단다. 게다가 니가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날엔 - 넌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넌 나이를 먹거든 - 가차 없이 내쳐질거야. 어디 그뿐이야? 니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아름답다는 몸은 너를 지키는 데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을 거야. 남성의 바람직한 몸바람직한 몸은 또 뭐래니? 안 날씬하고/근육 없으면 바람직한 가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라는 거니?이 탄탄한 근육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 자, 이제 그 통제를 깨부수는 게 어때? 어차피 갈 가시밭길이라면 적어도 니 발로, 니가 가고픈 길로 가는 게 낫지 않니? 어차피 상처받는 건 같으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네 몸이 숨 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잖아.

뭐시라? 지금 뭘 소리 하니? 요새 쏟아지는 기기도 못 봤니? 막 쏟아지고 있잖니. 뭉고주름이 많고 있어 미간이 넓은 눈, 세로목과 가로목이 좁은 작은 눈은 답답해 보여서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 안 좋은 피부는 또 어쩔고? 자기관리 안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싫어하대. 동동하면 게을러 보여서 안 된다하고 너 취직 안할래? 면접 안 볼거니? 요새 면접 잡되는 얼굴로도 성형한다던데 입에 물칠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대학 다닐 때도 안 받던 생활비를 졸업 하고 나서 받으려고? 아서라, 아서 그리고 아냐영, 최강희 조인성, 카라 등등을 좋아하는 게 누구더라? 물에 잘 들어맞는 사람들 좋아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포기 단계에 접어들어. 사회가 권하며 내가 욕망하기도 하는 몸이 되려 하지도 않고, 또 다른 내가 옹호하는 내 몸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아직도 전쟁만 치르고 있어. 이 전쟁이 언제쯤 끝이 날까?

전쟁뿐만이 아니야. 내가 거부하고 싶은 욕망들을 나 자신이 욕망하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 그렇게 자괴감에 잔뜩 찌들어서, 각기 다른 욕망 때문에 싸우고 있는 나에게 '으이구, 이 찌질이, 속터진다'며 한심해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게 되면, 머릿속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다 뒤엎겨 버렸어.

상상력을 빌려줘

내 고민을 나를 열심히 칭찬하며 전했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다. 칭 너무 많이 뽐냈다면 미안. 하늘을 나는 고철덩어리, 전파 주고 받기, 별도 볼 수 있는 유리조각, 큰 건물도 심지어 우주도 들어가는 네모상자. 온갖 신기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인데 어찌 이리 단조로운 2가지의 몸만 생각하게 된 걸까? 성기 발달 하나 - 사실 성기도 단 2가지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면서 - 로 2가지의 몸으로만 분류하고, 그 분류된 몸의 이름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구성하고, 여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몸엔 마르면서 풍만한 몸을! 남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몸엔 큰 덩치에 근육질 몸을! 그리고 고작 그 기표에 정체성과 관계들까지 모든 걸 꾸역꾸역 끼워 넣겠다는 이 상상력의 결핍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X야 너는 알 수 있지?

X야, 상상력을 조금 빌려줘. 사실 제대로 보기만 해도, 눈을 깨끗한 물에 잘 씻기만 해도 보일텐데, 상상할 수 없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되니까. 내 욕망 끝 좀 봐. 사회가 주입해 준 욕망과 그것을 거부하려는 욕망. 어쩔 이리 빈약하대니. 나에겐 새로운 욕망이 필요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 잠시만 빌려줘, X. 돌려주고 나서 기하게 한 톱 쏘게!

by X! 내가 그리워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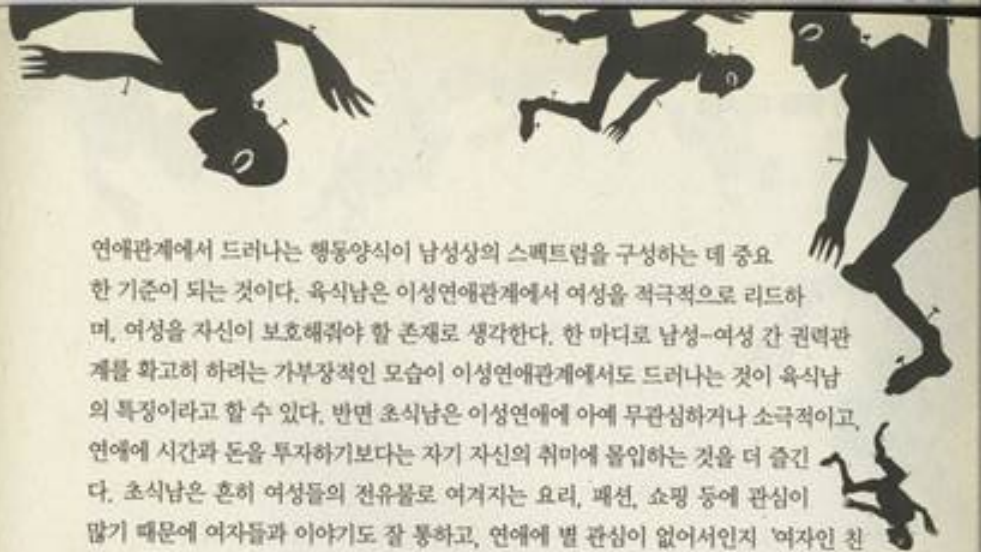


#Intro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게 신조어이지만, 대세가 되는 신조어는 또 따로 있다. 한동안 '알파걸'이 온갖 미디어에서 지치지도 않고 등장했던 것처럼 요즘은 '초식남', '토이남'이 또 많은 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도대체 이 초식남이라는 게 뭐길래 이 난리들인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이 꼭 탐탁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초식남 그만 게 뭐라고 내 알 바 아님 ㅇㅇ"하기에도 뭔가 뒤끝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초식남', '토이남'이라는 신조어 뒤에 숨겨진 맥락이 뭔지 좀 파헤쳐보아야 이 짹짹함이 좀 가실 거 같다. 말이다.

초식남, 토이남은 흔히 육식남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남성상(가부장성, 적극성, 책임감, 터프함을 과시하는 남성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남성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남성상이 그려지는 방식은 언제나 이성연애관계에 대한 묘사와 결부되어 있다. 이성

● 위키백과 및 네이버를 참고했다. '초식남(草食男)' 또는 초식계 남자(일본어: 草食系男子(そうしょくけいだんし))는 일본의 여성 잡지나스트 후카사와 마키(深沢マキ)가 명명한 용어로서, 기존의 '남성다움'(육식적)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서도, 주로 자신의 취미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이성과의 연애에는 소극적인 동성애자와는 차별된 남성을 일컫는다"고 한다. 그리고 토이남은 초식남의 한국식 변형인데 2007년 잡지나스트 김현진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분석하면서 처음 등장했으며, '감수성을 자극하는' 토이의 노래 주인공과 같은 낭만적 삶을 사는, 자기애가 강한 20~30대 초반 남성이라고 한다. 초식남과 유사하지만 큰 차이는 바로 연애를 한다는 것이라니.



연애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양식이 남성상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육식남은 이성연애관계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여성을 자신이 보호해줘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 한 마디로 남성-여성 간 권력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이성연애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육식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초식남은 이성연애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고, 연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취미에 몰입하는 것을 더 즐긴다. 초식남은 흔히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요리, 패션, 쇼핑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자와 이야기도 잘 통하고, 연애에 별 관심이 없어서인지 '여자친구'가 많다. 우스갯소리로 여자와 한방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일 없이 나올만큼 여자에 무관심하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그래도 '게이는 아니다.' 토이남은 약간 완화된 버전의 한국식 초식남으로 자기애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초식남과 유사하지만 '연애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토이남이 뮤지션 '토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면 토이남이 연애와는 패러야 될 수 없는 남성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많은 토이 노래 가사들을 떠올려보면 연애 이야기가 아닌 걸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은가. 어쨌든 토이남은 초식남과 달리 연애에 관심도 있고, 뭔가 감수성도 풍부하고 부드럽고 해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육식남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연애에 무관심하고 저 좋을 줄만 아는 초식남은 싫다'는 이성애자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남성상이라 하겠다.

#1

이렇게 초식남, 토이남, 육식남의 AtoZ까지 다 이성연애관계와 얽혀서 설명이 되는 판국에, 살짝 걸리는 것이 있다. 일단 하나는 이거다. 육식남=남성성을 재확인한 남성, 초식남=육식남에 비해 여성성이 보다 강한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각각 육식-초식으로 명명한 것에서부터 실상 육식남과 초식남의 위계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왜, 생태계의 피라미드에서 언제나 초식동물은 육식동물 아래에 놓여있지 않는가. 요즘은 터프한 마초 남성 스타일이 '존스럽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많은 매체들은 여전히 이성연애관계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하는 남성을 매력적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에 무관심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스러운 초식남은 남성성이 극대화된 육식남보다 약한 위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원래 초식남은 '연애에 무관심한 남자'로 설명이 되지만, 이것이 '연애에 소극적인', 그러다가 심지어는 '연애에 소극적인 짜질'로까지 격하되어 쓰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초식남은 육식남에 비해 이성연애 대상의 남성으로서의 그다지 매력 없는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남성들 사이에서도 초식남은 자신이 지향해야 할 매력적인 남성상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를 보여주는 한 예가 흔히 육식남으로 대변되는 아이돌인 2pm과 초식남으로 대변되는 아

이들인 사이나²에 대한 남성들의 선호도이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이나는 여자들에게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로 통하는 반면 2pm은 남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멋지다고 생각될 수 있는 아이들로 통한다. 여전히 육식남은 남성들이 지향해야 할 남성상으로 인식되고, 초식남은 뭔가 지향하기에는 걸끄러운 남성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또 걸리는 것이 있다. 도대체 초식남, 토이남, 육식남이라는 남성상에 대한 설명 속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인 남성의 모습은 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건가? 이들은 이렇게 남성상의 스펙트럼의 귀퉁이를 차지하기에도 버거울 만큼 '남성적이지' 않은 건가? 이성연애 관계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가 육식남, 토이남, 초식남을 분리하는, 즉 남성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척도가 되는 것은 이성연애관계에서 여성보다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남성성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연애에 무관심한 초식남조차도 동성애자와는 다르다는 수식 이 굳이 더 붙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성연애 관계에서만 남-여성의 권력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상대적인 강한, 적극성, 책임감 등을 확인하고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여성성이라는, '남성성의 여집합에 속하는' 개념 없이는, 또 이렇게 구성된 여성성과 위계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초식남 공략하기' 따위 같은 매뉴얼이 나오는 것처럼 초식남도 결국은 잠재적인 이성연애 대상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를 통해 초식남은 기존의 강한 남성성에서는 약간 비껴나 있지만 여전히 남성성에 포섭되어 있고 남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받는다.

#2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스러운' 초식남의 등장은 마치 기존의 남성-여성 간 권력관계가 전복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성이 좀더 '여성스러운' 남성으로 대체되었다는 것만으로 남성-여성 관계에서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는 않는다. 남성성/여성성이 마치 남성/여성이라는 신체를 근거로 당연히 발현되는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강인함이 남성성이라는 개념에 포섭

● 사실 사이나²가 2pm에 비해 스카니한 몸매를 갖고 있고 사방사방한 패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성'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워 보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성연애에 관심이 있는지, 이성연애에 적극적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들이 정확히 초식남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식남하면 2pm, 초식남하면 사이나가 언급되는 것에서 착안하여 예를 들었다.

되고 신체적/정신적 나약함이 여성성이라는 개념에 포섭되는 이상, 초식남이 됐든 누가 됐든 그는 이성관계에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해 권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설명 그가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이성연애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이성연애 관계에서 여성에 대해 권력을 갖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한 관계가 곧 '정상'이라는 이름하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남성/여성에게 강요되는 한, 어떤 개인의 특성이 전형적인 남성성/여성성에서 비껴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의 성별권력관계를 뒤집는 힘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남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남성성의 실재 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단순히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위계화된 성별이분법 구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Outro

따라서 초식남의 등장은 어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나 남성성이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이성연애가 가능한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그 속에서 이성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하지 않는, 그래서 남성-여성 간 권력구도를 연애 관계 속에서 충실히 재현하고 있지 않은 남성들은 남성성이 결여된 존재로 인식되어 배제된다. 그렇다면 이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남성성을 재구성할 것인가. 그러면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권력관계는 타파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남성성의 실재 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저 먼 우주 끝까지 확장시킨다 해도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성별권력관계를 전복시킬 수 없다. 그러니 여성성과의 위계화된 구분을 통해서만 비로소 확인받을 수 있는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만 치워버리는 게 좋다. 그건 소위 '생물학적 남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단지 이들을 억지로 묶어내어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을 초식남/토이남/육식남 등등 따위로 유형화하고, 남성성이라는 개념 아래 인위적으로 한데 묶으려는 자체가 얼마나 아이없는 시도인가. 다들 그냥 저 좋음대로 살면, 그게 더 편하고 좋지 않다. 기존의 남성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아들을 남성성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들바둥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신날 것이다.

by 초식남, 육식남, 토이남, ...남, ...녀 이만 거 다 우습고 유치해 달리



여성연예인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여성성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다를 건 없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메인에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고 아찔하게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들 말이다. '숨막히는 땃대', '땃몸 몸매' 부터 시작해서 '○○○ 열에 까지, 그것들은 네티즌들이 클릭질을 안하고는 못 배길 정도로 방정맞게 짹짹 거린다. 클릭 횟수가 높아야 하는 인터넷 기사의 속성을 생각해본다면,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만큼 좋은 소재도 있긴 하겠다. 대중들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늘 뜨거우니깐. 그리고 연예인들 역시 대중들의 관심을 원하니깐, 관심을 원하는 자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뭐가 문제지? 맞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조금 불편한 경험을 한 후, 이상한 짐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우두커니 터미널에 있는 공중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TV에선 30대 후반에 들어선 모 여배우가 화면에 비추어지는 중이었다. 그러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많이 늙었네.' '어디어디 고쳤네.' 부터 시작해서 '저 여잔 결혼 안 하고 뭐하냐?' '너무 드세서 감당할 남자가 없는거지.' 라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였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이. 그런데 그 이후 한 남자배우가 나오자 그에게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뭐 찍나보네?', '저 사람 연기 너무 잘하지!'

여성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남성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무언가 다른 것 같았다. 연예인이기에 '외모'와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빼놓을 수 없지만, 여성 연예인에게 그것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여성 연예인들에게서 그녀들의 '일'에 대한 프로의식 따위는 찾으려들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여성 연예인에게 '능력'이란 혹시 '끼와 재능'이 아닌 '외모와 사생활' 인건지 헛갈리게 하는 한 사건이 생각났다.

몇 년 전, 섹시 컨셉으로 한동안 가요계를 달궜던 가수 아이비가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공개 압박에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처음에는 한창 잘나가는 여가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다며 남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가, 사건의 전모가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 밝혀지면서 그 남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던 그녀에 대한 원색적 비난들만 남게 되었다. 결과는 그녀의 전면

적 활동중단. 그 이후 어느 작곡가와 사귀고 있다는 그녀에 대한 소식에도, 곧 컴백하려고 한다는 소식에도, 그 기사에는 그녀의 지지분한(?) 남자관계에 대한 댓글들이 난무할 뿐이었다.

여기에서 그녀의 끼와 재능에 대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기에 그 끼와 재능이 인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일단 제쳐두자. 어쨌든 그녀는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 요염한 춤으로 그 당시 여가수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남성편력' 사생활이 드러나게 되자 여성 연예인으로서의 '능력'을 잃으며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성 연예인들의 능력이 대부분 '외모와 사생활'이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연예계에서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그 기준도 참으로 엄격하다. 일단 외모부터 보자면, V라인의 조그만 얼굴에 쌍꺼풀 진 큰 눈과 높은 콧대, 늘씬한 몸매는 기본이다. 이 기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게도 '성형'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인기를 이미 얻은 기존의 여성 연예인들도 '성형'과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면 여성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듯 취급받으며 외면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녀들이 가수이건 배우이건 예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걸! 그런데 '외모'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기준도 눈물겹게 엄격하다. 자칫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알려지면 큰일이다. 한 남성의 지고지순한 여성이어야 하기에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이란다. 또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제 짝을 찾아 마땅히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권하고 있는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조금 문제가 있거나 남성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드센 여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희한하다. 여성 연예인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외모'와 '사생활'이 참 모순적이게 결합되어 있다. 외모에 있어서는 누구나 때로 시킬만한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요구하면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에게도 넘어가지 않았길 바란다. 누가 보아도 예쁘지만, 한 남자의 애인으로서는 아내로서 조신하길 바라는 것이다. 철저한 이중적 잣대.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주부들이 주로 시청하는 아침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어떠한 여성 연예인에게서든 공통적인 면모를 끌어내게 된다. 청순가련한 이미지의 그녀는 말할 것도 없고, 강렬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그녀 또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늘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해 놓는, 살림에도 능한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직업적인 이미지가 어떠한 가부장적 사회에 걸맞는 여성상이어야 그녀들은 여성 연예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여성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었던 건 바로 이 이상한 이중적 잣대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뿌리박혀 있었던 탓이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women dream'이 이미 상투했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 시대에 예전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가부장적 권력자의 억압된 여성성을 확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와 여성의 사회적 성공 사례들의 축적은 겉으로만 보이면 그럴 듯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보이지 않게 자신들에게 휘둘러지는 가부장적 권력을 인지하는 때가 있어도, 그럴 듯한 자료들을 보고는 자신에게 충분히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하지만 본질을 꿰뚫어보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공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전제'로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다. 즉, 외모적으로 예쁘고 아름답지만 다른 남성과 엇이지 않고 한 남성에게 고분고분하며 깨끗한 사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의 남성이 가장 바라는 여성성이고, 이 여성성이 임금노동을 하는 비율이 현격히 늘어난 현대의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입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성이 임금노동을 할 때에도 적합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모습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때문에 여성은 직업전선에서 남성과 같이 업무적인 능력만을 요구받기보다는, 기존의 주어진 성역할에서 여성적이라 일컬어지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모를 더 많이 보여주길 기대되어진다. 게다가 일을 잘한다는 건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린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사회에서의 성공과 뛰어난 능력은 남성의 전유물,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여겨짐을 뜻한다. 실력이 떨어지는 여성에게는 '여자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 잘하는 여성에게는 '넌 여자 같지 않아.'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은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능력을 여성의 특징으로서 보지 않고 한 개인의 특징으로서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여성이 바깥 일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되면서 마치 여성에게도 남성과 다를 것 없는 사회적 지위가 부여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사회의 입맛에 맞추어진 여성성과 성역할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현실은 성역할이나 여성성/남성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구분이 뚜렷하게 표출되었던 예전보다 더 위험할 지도 모른다.

아직도 여성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혼인 제도에 적합하게 재단되고 있다. 그것은 남성성을 갖춘 남성이 보기에도 좋고 다루기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여성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남성성보다 태생적으로 열등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여성성의 잣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무렇게나 씹어댈 수(?) 있게 만들어진 여성 연예인이다. 그녀들은 그저 대중들의 눈요기거리로서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는 그녀들의 꾀와 재능을,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꾀와 재능, 열정도 없으면서 외모 하나 반반한 걸로 인기를 얻는 여성 연예인도 있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연예인이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사회를, 이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여성성을 돌이켜보았을 한다. 그리고 내가 되묻고 싶다. 과연 그녀들만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by 그 여성성이란 것이 신중론보다 더 싶은, 갈매기

여성성, 남성성에 간하지 않은 나의 욕망과 경험



어쩌면 '여성' 혹은 '남성'을 연기하기란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어지거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쾀던대로 여자아이는 반드시 남자아이와 사랑에 빠지고 수줍은 듯 그의 손에 이끌려가고 그랬어요. 잡지에서 뽀얀대로 매니큐어든 플랫폼즈든 차마든 그건 전부 여자만 입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어쨌거나 남자가 보기엔 예뻐보이는 곡선이 살아있는 옷만 여자는 입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대로 여자아이는 땀 뻘뻘 흘릴 정도로 뛰어야니깐 안 예쁘고 '아니 나 같은 감탄사를 뱉으며 앉아 있는게 예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계 몇가에서부터 못처럼,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입으로 무엇을 말할 건지. 무얼 좋아하고 싫어할지도 '여성'의 것과 '남성'의 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 시키는 대로만 굴러갈까요? 반박반박 빛나는 우리 X들이 어디 그들이 만든 '여성'과 '남성'이라는 규격에 군말 없이 잘려나갈 사람들입니까? 이성연애에서 남성은 주체가 되고 여성은 대상이 된다는 틀같은 건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세상엔 이성애적 감정과 관계만 존재한다는 명명 같은 건 다 헛소리잖아요. 여자? 남자? 그게 댜대요? 입고 싶은 걸 골라 입는 게 제일 멋진 거 아니가요? 팔뚝 튀고 심으면 팔뚝 튀고, '오아' 사치후라도 내지르고 싶으면 내지르면서 달리는 X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야구 팬이자, 캐치볼을 좋아하는 X도 있고, 레즈비언 드라마 애청자인 X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X의 삶이 한데 모여 그 '여성'과 '남성'이란 게 댜것도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려 나섰습니다. 이렇게 모이두고 보면 나의 삶도 너의 삶도 그래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은 '여성'이나 '남성'의 비좁은 틀에 가워질 수 없었습니다. Everybody can be X! 자, 이제 내 일상 속에, 내 경험 속에 들쭉거리고 있는 X를 맘껏 펼쳐놓을 차례입니다.

600페이지의 양장본 전공책,

180페이지의 책 한권, 100장의 article과 PT 프린트물, 가족으로 된 리필형 6공 다이어리, 세 가지 색 펜과 샤프, 형광펜, 수정테이프는 물론 자, 풀과 칼까지 들은 필통, 휴지, 물휴지, 비비크림, 거울, 선크림, 립글로즈, 칫솔, 치약, QT책, 엠피쓰리, 전자사전, 양장본의 전공책은 안고 간다 해도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급기야 텔레비전에서 무거운 슬더백을 땀을 겨우 척만중과 어깨근육의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보고서 반드시 백팩을 사리라 마음을 먹었다.



우산 없을 거 뻔하고 다 있다는 인터넷 쇼핑물을 뒤져본다. 키워드는 '여성용 백팩', '아냐, 남, 손바닥만한 백팩은 뭐하러 메나요', '여성용'이 문제인가? 다음 키워드는 '백팩', '아냐, 남, 제 몸통보다 더 큰 것밖에는 청년 없는건가여, 갑자기 청바지를 살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오른다. 때는 바야흐로 스키니 열풍, 답답한 스키니는 좋아하지 않는 나는 입자바지를 찾아다니지만 온 백화점을 다 돌아다녀도 스키니 외엔 나오지 않는단다. 예라이, 상업에 의해 만들어진 유행아! 유행이 먼저인지 자본이 먼저인지, 만들지 않아서 없고 없어서 그것만 입고 그래서 유행이면, 대체 뭐야 이따위.

후, 그래도 보세라면! 나의 개성을 알아줄 조그만 상징들이 있을거야! 차마 없는 시간에 명동과 홍대까진 무리고 신촌과 이대를 돈다. 피약별, 나는 그올려가고 세바퀴쯤 돌았을 땐 인정해야만했다. 결국 똑같아. 빌어먹게 무박하고, 가방이 나를 땀 것 같은 고동색 가죽가방 아니면 분홍색 보들보들한, 손바닥 두 개 크기 양가죽 가방뿐이다. 아, 둘 다 기준에 약간씩 못 미치는 것들이 가격도 겁내 비싸, 과외 팔린 나는 그저 울지요.

결국 도저히 다음날까지 그 무거운 슬더백을 땀 수는 없었던 나의 결론은 노스페이스* 미니셔였다. 아, 네, 저는 최소한의 실용성을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는야 현명한 소비자! 라는 생각은 딱 하루만~ 크기도 전공책 여윌게 들어가면서도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에, 양치도구는 양치도구끼리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수납공간도 여윌지, 색도 짙은 보랏빛이라, 빨간옷에도 잘 어울리고 파란옷에도 잘 어울리고 무채색 계열에도 잘 어울리는데- 아냐, 할말은 그것뿐이나?

"완전 복학생이야ㅋㅋㅋㅋㅋ"

◆ 남, 어깨가 아파서 백팩 땀어요.

"요즘은 복학생도 안 그러고 다닌다 ㅋㅋㅋㅋ"

◆ 패서너블한거 사려니까 개비싸고 손바닥만하거나 짐작만한거밖에 없어서 노스페이스* 샀어요.

"노스에 우산...? 어디 등산가세요?"

◆ 양손 좀 자유롭게 쓰려고 우산 좀 옆에 끼으려고 있는데다 꽃았어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완전 운동권이야 무슨?"

◆ 인바디 검사하니까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 좀 마시려는데 넣었다 뺐다 하기 싫어서 옆에 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꽃다운 여대생, 그것도 3학년인데..."

◆ 어째라구요.

뭐가 문제인데, 대체?

by 나무

난 이쁜 플랫슈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

옛지 있는 하이힐도 귀여운 스니커즈도 아니고, 플랫슈즈다. 손님 없는 무료한 아르바이트 시간, 나와 다른 알바생은 인터넷 쇼핑물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화면에 등장한 은갈치마냥 불링불링한 은색 플랫슈즈, 소재도 디자인도 색깔도 내 스타일이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와 진짜 이쁘다. 아 어떡해 저거 사고싶다!!! 근데 내 사이즈는 없겠지? 아, 말실수다. 옆에 있던 알바생이 나를 본다. 표정이 이상하다. 입을 연다. '니가 왜 저걸 신어, 더러워.'

대충 그런 반응을 예상하곤 있었지만 더럽다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나는 단지 플랫슈즈가 사랑스러웠을 뿐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는 '남성'이고, 플랫슈즈는 '여성용'이란 것, 그것밖에 없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난 '더러운' 사람이 되기에 충분했다 보자.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오로지 확실한 '남성'과 '여성'만을 원하고, 그것에서 어긋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경계를 넘나들거나, 허물어뜨리거나, 비웃는 자에게 어떤 낙인과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건 당할 때마다 참 막막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싸웠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결박하게, 처절하게 싸웠다. 그 싸움의 끝에 결국 들은 말은 '솔직히 니가 이상하다'는 선고였고, '그냥 다른 남자들처럼 살라'는 조언이었다. 그 말에 난 또 한번 저 밖으로 떠밀려났다. 난 말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 빌어먹을 세상.

by 수영



최근에 나는 머리를 잘랐다.

예쁘게 자르라는 건 아니었고, 딱! 잘라서 여름인데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은 덜 '여성'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팽팽한 나의 욕망이었을까. 결국 어찌까지 내려왔던 내 머리를 조금 머리가 긴 '남성'의 헤어스타일처럼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게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다. 미용실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무수한 고민을 했다. 내가 정말 머리를 잘라도 될까, 그렇게 짧은 머리를 하면 집에서 뭐라고는 안 할까, 친구들이 날 보고 '이건 웬 남자애야'라고 말하고선 괜히 던질 장난스런 비난의 말들을 나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머리를 자르려는데, 미용사 분께서도 나한테 계속 조심스레 말을 건네시는 거였다. 컷트 해본 적 없으면 어색할 텐데 여성스럽게 좀 길게 남기면 어떨까요, 예쁘게 헤드릴게요, 그래서, 짧은 머리어도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야 한다는 온갖 압박들 속에, 내 머리는 짧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어울릴 만한 예쁜 컷트'이다. 보기 좋은 헤어스타일이라 다행이라는 마음 반, 좀 더 과감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반, 나는 왜 아쉬운 걸까. 내가 머리를 자르면서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계속 생각하다보니 내 마음 속에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삭발에 대한 은밀하고도 집요한 욕망이 머릿속을 온통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삭발을 하고 싶다. '여성'으로 보이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 내게 헤어스타일은 가끔씩 관리해주면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매일 매일 일어나면 머리를 감아야 하고, 머리가 뻗치지 않도록 제대로 드라이를 해줘야 하고, 하루에도 수십번 앞머리가 갈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언제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관리 대상이 바로 머리인 것이다. 머리 손질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집 밖을 나서는 날이면 주위에서는 어김없이 내게 '여자가 왜 칠칠맞게 왜 그래', '좀 어떻게 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무한반복한다. 그건 머리까지 내려오는 머리건, 어깨선까지 떨어지는 머리건, 자궁처럼 컷트 스타일의 머리건 상관없다.

삭발을 한다는 건, 그런 온갖 신경 쓰이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동시에 내게 주어진 '여성성'이라는 역할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여름이니까 완·전 시원해지기도 할 테다. 그럼에도 내가 감히 삭발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삭발이 마치 '여성성'에 있어서 데드엔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삭발식을 치르는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이미지 (예컨대 '여성성까지 포기해가며' 감행하는 눈물의 삭발식'이라는 동 포장하는 언론), 조금만 짧아도 여성스럽지 않게 뭐하는 것이냐는 사람들이 삭발한 내 머리를 보고 보일 반응들, 무수한 시선과 말들, 그것들이 내게 향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위안 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래도록 머물며 여행할 수 있다면, 나는 꼭! 꼭! 꼭! 삭발을 하고 말테다. 라는 조금은 비루한 다짐이다. 흑흑.

by 성별 규범따위 없어져버려라 첫 루

난 '원피스'가 입고 싶더라.

뜨끈한 한 여름 땀에 젖어가는 내 허벅지는 바람과 '뽕'하고 싶어 한다. 그런 바람과 '뽕'할 수 있는 아이템이 눈에 띄었으니 바로 '원피스'! 뭘 안 입어서 모르겠지만 바람에 살랑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시원해 보인다. 살랑살랑 등실등실, 안 입어서 모르겠지만 안 입어서 더 그렇겠지만 꽃 피는 봄이면 원피스가 땀기고, 무더운 여름에도 원피스가 끌리고, 시원한 가을에도 원피스가 좋겠다이다. 한 번 입어보면 안될까?

아는 친구가 그렇게도 좋아라 하니 집에서라도 입으라고 치마 한 자락을 선물해주었다. 원하던 원피스, 살랑거리는 고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랫도리 시원하니 상큼할 것 같아 입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고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입어보진 못했다. 그토록 노래하고 이야기했지만 왜 입어보지 못했을까?

눈이 무서웠다. 집 안에 보는 이 누가 있냐고? 내가 보고 있었다. 내 안의 남성성이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의 '성'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걸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선가 스물스물 내 안 한 구석을 고요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슬퍼졌다. 자신이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자신이 입고 싶은 사람과 살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싶다고 떠들던 바로 그 자기 자신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흘러 어느 날 어떤 행사에서 드레스를 하게 되었다. 꼭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서 원더걸스의 땀마를 땀다. 화장도 하고서 발랄하게 나를 뽐냈다. 몸차이면서 말이다. 아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일본에서 요즘 남성 치마가 유행이란다. 10년 뒤쯤에 치마 입고서 거리를 한 번 쏘다닐 수 있는 그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올 때까지 내 안의 이 두려움, 밀쳐내고 집 안에서라도 원피스 입고 드러누워 땀갈 수 있기를.

by 마썸

소개팅에 나가면 늘 주고받는 필수 질문이 있다.

'취미가 뭐예요?' 나는 망설임 없이 '야구 좋아해요. 야구보는 게 취미예요' 라고 대답한다. 돌아오는 대답은 "우와, 여자분께서 야구가 취미라고요?"

'이봐요, 요즘 야구장을 찾는 관객 중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라고 말할까하다 말았다. 하도 여러 번 겪다보니 이제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은 탓이었다. 많아진 여성 야구팬들이 기사화되면서 야구의 대중화니 뭐니 해도, 역시 아직까지는 스포츠가 남성의 취미 영역인 양 여겨지는 건 여전한 듯 하다.

여성 야구팬들에 대한 신기한 듯한 시선도 참 어이없는 일인 건 하지만, 여성 야구팬을 무



시하는 듯한 태도는 더 어이없다. 몇몇 남성 야구팬들은 여성 야구팬들을 보면 일단 "올림픽 이후로? 아니면 WBC이후로?"라고 묻는다. 국가대항전으로 인한 차수는 열기에 휩쓸려 좋아하게 되었을 거라고 오래전 작해 버린 뒤, 이런 계기는 마치 순수하지 못하다는 양 취급하면서 말이다. 이게 딱봐도 아니고 원조 따지듯이 그렇게 여성 팬들을 야구 팬 사이에서도 차별해 버리는데, 나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여성 팬들이 특정한 선수를 좋아하면서 '잘생겼다'고 하면 "여자들이 그렇지, 야구도 잘 볼 줄 모르면서 선수들 외모만 보고 좋아하지." 따위의 반응을 보이곤 한다. 아니, 남성 팬들은 치어리더나 배트

걸을 보고 대놓고 좋아하면서 여성 팬들이 선수들의 외모를 언급하니 왜 그리 기쁨을 무는건지! 여성이 남성들의 바라보아지는 '객체'로서 익숙해져 있다보니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주체'로서 행동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여성 팬이기에 야구를 잘 모른다고 예단해 버리는 건 또 뭐야? 나만 해도 선수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위기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교체되어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야구에 대해 모두 다 알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여성이란 이유로 평가절하될 정도는 아니란 말이다.

스포츠 팬들 집단 내에서도, 그리고 그 집단 외에서도, 여성 팬들은 어중이떠중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왠지 억울하다. 취미도 남성성과 여성성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면, 나는 그럼 요가나 뜨개질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심지어 학교 운동장을 지나갈 때마다 클리브를 끼고 캐치볼을 하는 남성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나는 정말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건지.

by 갈매기

판타지 퓨전 무협지를 수백권 가까이 읽고, 판타지세계

속의 무기, 종족, 마법종류(스펠 룬, 주문어 등) 세계관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먼치킨과 길딩타입에 비난과 비판을 아끼지 않고, 공상에 빠져살며, 게임자체보다는 게임스토리북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마니아 친구와 인물설정과 세계관에 대해 토론까지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타쿠이다 (←←)

오타쿠에 갖든 여러 부정적 이미지들을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여.자.애라는 점이 눈앞을 캄캄하게 말한다. 왜 여자애여서 문제냐고? 어쩌면 당신은 남자애들이랑 관심사가 비슷하여 말이 통하는 호탕한 여자애를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독심있게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어

른스러운 여자애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 정말 그런 성격과 기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남들 눈엔 내가 어찌 보이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고1시절 내가 화려한 책표지의 옷기는 제목의 판타지책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반 남자애의 트아한 표정에서 감을 잡았다. 난 신기한 생물?.....이었던 것다. 정말 그동안 나를조용하고 공부밖에모르는 까탈스런 여자애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그애는 판타지책을 좋아한다는 나의 말에 빈약한 상상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책이름을 대면서 '너는 이러종류 좋아하지?' 라고 단정짓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적다 너무 달아서 토할것 같은 로맨스판타지 종류였다. (물론 로맨스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애가 말한것들은 내가 경멸하는 것들인데 남 바보로 아니?)

어쨌든 비슷한 취미를 가진 남자애들은 많았고 그 중 몇명과는 말해볼 수 있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엔 기이한 표정이었지만 말이다 (아! 너희 생각에 '범생이 여자애'는 그런책 못읽나?) 그러나 그애들은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책을 추천해주거나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워해도 내가 열내어서 비평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한다 것이 충격이었나 보다)

그 뒤로 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내 고집도 있었고, 그 이상한 시선때문에 창피하기도 해서 웬만하면 내 취미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대여점의 순정만화와 비순정만화사이의 엄청난 간극처럼 판타지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한다. 판타지 오타쿠 여자애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다. 취향이 까다로워서 마니아중에서도 마이너인 나지만 여자애라서 더욱 마이너임을 당신은 아는가? @_@

by 윤

땀에 젖은 나시티 입고 펄쩍펄쩍 날뛰고 싶다.

티셔츠는 꼭 땀에 흠뻑 젖어야 한다. 그리고 땀의 이유는 오로지 농구! 농구! 농구여야 한다. 게다가 꼭 나시티여야 한다. 거드랑이에 털이 흰히 보여도 아무런 부끄럼도 타지 않는 맘으로 땀장 나시티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땀에 흠뻑 젖은 나시티를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팔을 들었다 올렸다가하면서 교실로 들어오는 거지.

고등학교 교실의 다른 아이들은 남자애들이 운동하고 들어오는 것을 땀냄새 난다고 싫어했지만, 나는 그 땀냄새를 직접 풍기지 못해서 싫었다. 나도 온 몸으로 땀냄새를 뿜풍 풍기면서 땀에 젖은 나시티를 펄럭펄럭이면서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들한테 '그래,

너희는 참 건강하구나 하는 흐뭇한 시선도 받아보고, 같이 운동한 친구들이랑 시 골박적하게 웃어도 보고 싶었다. 곧, 나는 몇몇 여학생들이랑 농구를 시작했다. 쉬는 시간마다 웅수철처럼 뛰어나가서 농구를 했다. 농구하다 자습시간에 늦어서 맘에 (조금) 젖은 티셔츠 입고 들어와도 보고, 에어컨 바람 앞에 앉아도 됐다. 슬램덩크를 봤을 때부터 가졌던 농구와 맘과 스포츠로 생기는 우정에 대한 로망을 차곡차곡 실현하고 싶었다.

근데 왜!!!!!! 여자가 농구 열심히 하면 우락부락하다고 하는 거냐. 왜!!!!!! 여자가 맘 졸졸 흘리고 있으면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거냐. 왜!!!!!! 여자는 겨드랑이털 파원 하나도 없이 하얗고 멀건 팔을 몸 중앙에 밀착한 자세로 방긋거리야 한다는 거냐. 여자에는 강박증이 될 수 없다는 거냐.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건 나도 강박증 같았는데 말이다.

by 파니



나는 L word를 친구랑 돌려보았습니다. L word는 레즈비언의 삶을 주제로 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온갖하게 쪽지를 하나 보냈고, 거기엔 L word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부터 시작된 L word 시청은 시즌이 3개가 지나도록, 나의 고3 생활이 끝나도록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들의 관계가 멋졌고,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고, 그 중 알리스 역할로 나온 배우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사랑이 이뤄졌으면 했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커플이어서 오해와 갈등을 넘어 다시 알콩달콩 같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빨리 다음 화가 보고 싶어 애가 타고, 다음 화가 나왔는데 나의 바람과 다르면 속상했습니다. 그 친구와 매일 만나서 L word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나온 커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L word를 무지 좋아했다는 사실은 그 친구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L word를 그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챙겨보고, 결국 CD에 구워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는 사실도 그 친구밖에는 모릅니다. '이상한 드라마' 좋아하는 '이상한 애'라고 찍힐까봐 숨겼습니다. 동생이 보고 레즈비언 드라마를 보다니, 너도 레즈비언이냐? 그럴까봐 씨디에 비밀번호 걸었습니다. 교실에서 맨날 어제 본 드라마, 이성애자의 삶을 주제로 한 드라마 얘기를 하는 친구가 갑자기 왜 그리 부럽던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로지 신나는 맘으로, 나의 애정과 흥분과 감정이입을 온 몸으로 표현하며 나도 어디서 L word 얘기 해보고 싶었던 말입니다!!!!!!

by 데이나



최근에는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 가끔 동생들에게 농담처럼 말한 적은 있어도 진지하게 말해본 적은 없고, 동생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뭐냐면...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난 뛰뛰기기를 좋아해. 답답한 건 싫어하고, 근데 가슴은 뽕 때 좀 불편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브레이저도 너무 답답하고, 전에 친구들과 농구하다가 브레이저 끈이 자꾸 풀리는 바람에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 그 때 엄청 불편하더라고. 이번 여름엔 잠시 운동 바람이 들어서 한강을 이주정도 뛰었었는데, 가끔 있었어. 어딘가를 참 티 나게 응시하던 몇몇 분들이, 내 몸이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된다는 게 참 불쾌했었지.

난 페니스가 없어서 좋아. 그런데 가슴도 함께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 성기 단 하나로 2가지의 몸으로만 분류하고, 그 분류된 몸의 이름에 따라 몸의 다른 부분들도 구성되니까. 그 2가지 이름에 포함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까? '나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by 강백호는 뜨거운 코트를 가리며 나에게 갔지만 나는 시원한 바람을 가리며 그냥 멀리러간다. 아보

내 눈을 보기가 무섭게 들이대던 너의 고개 그리고 맞대오는 입술. 입술을 맞대다 보면 가슴으로 슬금슬금 기어올라오던 너의 손. 그 손목을 붙잡은 나의 손. 하지만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던 너의 똑같은 경로. 입술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의 내 성기까지.

사람들은 나에게 '키스는 했어?' '어디까지 갔어?' 라며 '진도'를 물어오곤 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런 질문들에 술술 대답 잘 하는 여자라면 그 추운 겨울의 길바닥에서 내 옷을 술술 걷어 올려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했나 보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끝냈다. 그렇게 내가 간간히 너에게 보내던 '신호등과 손짓들'을 가법게 무시했던 너였다. 마음을 탐하기보다는 몸을 탐하기에 급급했던 너였다. 너에선 내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얼굴마저 보기 싫었다. 네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다시금 내게 입술을 맞대려 들 것만 같았다.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손목을 붙잡아 확 비틀며 '이런 짓 그만해. 내가 네 섹스토크인줄 알아?' 라고 말했더라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렇게 너와의 시



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원했던 시간들로, 내가 원했던 행동들로, 내가 원했던 행위들로 그 시간들을 다시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시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 시간들을 되돌려 보느라 나의 말은 줄어들었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대부분이 무서웠다. 그래서 지꾸 혼자 있으려고 했다. 질문거리가 없어진 사람들은 나에게 '한 남자의 첫사랑을 짓밟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해주었다. '그 남자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너는 아니냐고, '그래도 첫사랑인데 너무하지 않냐고, '원래 대학생이면 다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연애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상황을 능숙하게 받아들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나는 '연애 경험'은 있었지만, '이런 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는 아니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죽여야 했던 시간들을 그들은 모른다. 나는 네 뺨에 비친 내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바라보곤 했던 건데, 너는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by 김

중학교 때 나는 나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사실 여자들만 모여 있는 '여자중학교'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오히려 같은 여자인 친구들 간의 차이가 더 도드라졌다. 나는 다른 여자친구들에 비해 소위 더 '남성적'인 편에 가까워서, 친구들 중에서도 나를 마치 남자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애들이 많았다. '첫사랑을 달았다'라거나, '멋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나도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지 않았다. 내 스스로도 마치 '매너좋은 남자에 처럼' 여자친구들을 배려하려 노력했다. 남들 앞에서 쉽게 토라지거나 울지 않는 건 내 성격이기도 했지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좀 더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었다. 그냥 여자친구들한테 더 멋지게 보이고 싶고, 더 기뻐만한 존재로 보이고 싶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론 가슴이 자라는 것, 땀이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곡선을 갖거나 보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아동을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웃도 험한 웃음을 입고 다녔다. 너무 귀엽거나 아기자기한 학용품도 싫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여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싫었던 것 같다. 2차 성징이니 뭐니 해서 '여자로서' 성숙해가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난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무성적인 존재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난 내가 여자인 걸 의식하지 않고/혹은 의식하려 하지 않고 살았다. 친한 친구 중에 그때부터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 내게 페미니즘 이야기를 꺼내

면, '뭐 하러 그렇게 여자/남자를 나눠서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중이라는 공간에서 난 애써 내가 여자인 것을 의식하거나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여중을 졸업해서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나는 '여자'로 인식되었고, '여자'로서 대우받았고, '여자'로서 바람직하고 여겨지는 규범들을 강요받게 됐다. 남자 선생들은 나에게 여자애가 왜 이렇게 무뚝뚝하나, 사근사근하지 못하나, 애교가 없냐고 타박했고 남자애들 대부분은 귀엽지 않고, 사근사근하지 않은 나를 마뜩찮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난 주눅이 들어있었고, 남자애들과 거리를 뒀고, 애써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다른 애들이 보기엔 '남성적이지 못한' 남자애들이거나 나의 '여자답지 않음'에 별로 개의치 않는 남자애들이었다. 반면 같은 학년 여자친구들은 입이 무겁고 털털한 나를 비교적 편하게 생각했고, 여자 후배들은 날 좋아했고, 의지할 만한 선배로 생각했다. 여자친구들과 있을 때 나는 좀 쿨한 척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비교적 내가 편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자애들과 있을 때는 무뚝뚝하고 남성적인 애가 아니라 얌전하고 여성적인 애로 인식되려고 노력해야 했다. 여자애들과 있을 때와 남자애들과 있을 때 느끼는 괴리감 속에서 나는 마치 자아분열이 되더라도 한 것처럼 괴롭고 불편했다. 그래도 어쩔어쩔 나의 괴로움을 감추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괜찮은 사람'으로 호감을 사려면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으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나의 자아분열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냥 애써 여성적이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고등학교 친구들과 있을 땐, 비록 그 친구들이랑 내가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좀더 사회적 통념에 맞는 여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를테면 난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진짜 많지만, 내가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난 같은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타박을 하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 이야기보다는 남자 연예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좀 더 서먹한 사이라면 여자로서 보이기 위해 내가 수행해야 하는 노력의 강도 또한 더 강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매니쉬한 옷차림보다 좀더 여성스러운 옷차림, 좀더 여성스러운 미소, 털털하지만 너무 남자답지는 않은 말투를 구사하기 위해 나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정말 갑갑하고 싫다. 누가 날 '여자'로, '잠재적 연애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싫다. 정말 싫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나답지 않은 나를 애써 수행하고 보여줘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오늘날 자아분열적인 인간으로 살게 만든다.

by 안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크게 웃으며 지내고 싶었지.

사람들이 친절히 얼굴로 내게 말을 건네.

"넌 어떻게 된 애가 여자답지 못하게, 그러면 안돼."
"넌 어떻게 된 애가 남자답지 못하게, 그러면 안돼."

오로지 '나'로서 살고 싶는데 왜 자꾸 나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려고 하나?

처음에는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해 보았지.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일은 똑같았지.

"넌 참 남자답지 못하구나. 그게 뭐니?"
"넌 참 여자답지 못하구나. 그게 뭐니?"

이제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지 않으려 해.
이제 나는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거야.

이제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넘어선 'X'로서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내게 들려오던 '남자/여자' 이기를 버리는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온전한 'X'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거야.
수많은 'X'들을 만나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크게 웃을 거야.
우리들의 그 모든 소리를 거만가만 피워낼 거야.
우리, X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X'로 살아남기로 해.

초등학교 2학년 체육 시간, 뽕뽕뽕기를 했던 그 날이 생각난다. 내가 제 일 앞줄에 서서 뽕뽕을 넘어야 했었는데, 그 때 뽕뽕이 불안정하게 뽕아올려져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워낙에 뽕뽕을 제대로 넘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던 나였는데, 내가 잘못 넘어서 저게 무너지면 어쩌하지,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담임선생님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어서 팔라 뒤라고 재촉하고 있는 중에 나는 '선생님 뽕뽕이 불안해보여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스스로 둔하다고 여겨서 체육시간만 되면 유난히 위축되던 내가, 지금 이 순간 뽕기 살아서 뽕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뒤에 서있는 수많은 아이들. 내가 제일 처음인데, 시간을 끌면 저 아이들이 빨리 뛰고 끝내고 싶어 할텐데 내가 말을 꺼내면 늦어질까봐 무서웠다. 애잇, 모르겠다. 내가 뽕 후에도 뽕뽕이 그대로 버려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출발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몸을 맡기는 순간 뽕뽕은 무너졌고, 선생님은 혀를 끝끝 찼다. '저렇게 몸이 둔해서 어쩌하나.' 내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한 뽕뽕에 온 힘을 다한 손목이 삐끗해서 아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내 손목보다도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짜증내는 게 보인다. 저 아이들도 나를 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체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나는 그 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몸을 쓰는 체육시간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그럼 나는 왜 몸을 쓰려고만 하면 무서움에 발발 떠는 걸까? 그 때 그런 생각도 했다. 나는 왜 뽕뽕을 잘 넘지 못할까, 왜 운동신경이 이렇게나 둔한 걸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 서러웠다. 내 몸이 다친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묻혀 아무도 관찮다고 묻지 않았던 것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후기

나의 몸,
나의 경험
온전히 바라보기

그 때의 기억은 한 순간에 그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몸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트라우마가 되어 아직도 나를 쫓아다닌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몸을 쓰는 게 둔하고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직도 둔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남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앞선다.

생각해보면 내가 자라온 과정은 곧 '여성'이라는 틀에 끼워맞추는 과정이었다. '여성'으로 키워진 나는 상대방을 언제나 배려하는 태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배워왔다. 누구나 '배려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며 자랐겠지만, 그것은 한 사회에서 특히 '여성성'과 결부되어 '여성'이 마땅히 지녀야 할 '덕'으로 간주되곤 한다. 나에게 그러한 사회화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언제나 그래왔던 것 같다. 겨우 아장아장 걸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고 울면서 때쓰는 건 착하지 못한 아이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배웠다. 기본 나쁜 일이 있어도 싫은 낯을 보이는 건 미숙한 태도라고 배웠다. 화가 나도 웃으면서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게 조목조목 논리를 펼치는 게 상책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몸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하도록 배웠던 거 같다. 내게 머리가 아닌 몸을 쓰는 일은 익숙하지가 않았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나는 잘 그러지를 못했다. 혹시라도 여자아이의 몸에 흉터가 남을까 집에서 과보호를 했던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의 동학교길엔 항상 '어른'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친구들이 혼자서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서 돌아오는 중에 내키면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 일상이 내게는 없었다.

이렇게 자라온 내게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을 표현할 만한 언어, 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몸의 언어는 자리잡을 기회가 없었다.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내 몸이 먼저 보이는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언어를 주는 것은 제대로 허락되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여성성'을 학습받으면서 자라온 내 안에서 이성의 언어에 대한 규범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충돌 뒹뚱했고, 그 결과 나는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상처가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피해로 느껴지는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범은 나날이 늘어갔다. 중학교 때 교복치마를 입게 되면서 보다 다소곳하게 앉고 몸의 움직임은 작게 하도록 배웠다. 몸을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나는 그게 오히려 편했던 것도 같다. 여지껏 해왔던 대로 둔하게 굴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깐, 그게 말괄량이보다 '숙녀'에 가까운 모습이니깐, 이제 모두들 나를 예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체육 시간에 점점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 늘어났다. '남자'로 길러진 아이들과 싸우면 내가 유난히 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예로 보일 테니, 기분이 나빠도 절대 싸우지 말고 새침하게 웃으며 넘겨야 한다고 모두가 조언해주었다. 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만 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해도 절대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니깐 내 몸이 둔한 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 대신 유사시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나는 보호받기에 적당한 예쁘고 다소곳한 아이가 되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무섭고 두려운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 모든 게 완벽하다고 모두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다고는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규범을 몸에 익힐수록 점점 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으레 '무심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외의 나의 경험은 설명할 수가 없었다.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나의 경험과 감정들은 그 누구도 보호해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말로나 몸으로나 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도록 사회화되어온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모순들에 갇혀서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이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라고. 그제서야 지난한 싸움의 과정과 함께 온들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내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았다. 남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하면서 막 대해도 되는 것인지, 나에게 물리적 인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몸을 써서 나를 방어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고민으로 남았다.

그러다가 만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성폭력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고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훈련은 내게 새로운 자신감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에서는 몸의 언어를 긍정할 수 있었다. 언젠가 자기방어훈련 시간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 들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내 몸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공물이를 하는 사람들 옆을 지나갈 때 혹시 공에 맞지는 않을까 몸이 굳어지는 경험을 설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던 건, 내가 여지껏 내 몸이 머리카락만 먼저 보여온 반응들에 내가 참 무심했다는 거였다. 내 몸이 감지하는 위협에 대해서 나는 '별 것 아니겠지' 식으로 예뻐 이성적인 척하려 했던 것이다. 그 시간 이후에도 나는 계속 내 표정과 몸짓, 태도와 같이 무엇인가를 집혔을 때 내 몸이 보이는 반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

주부왕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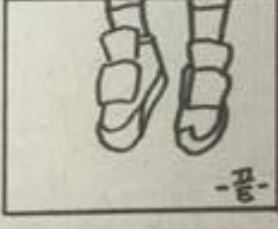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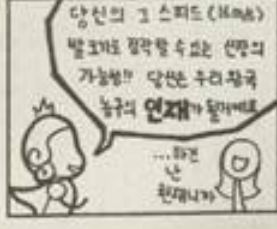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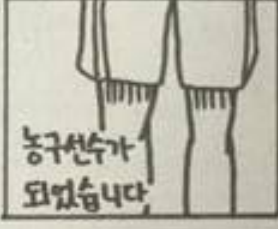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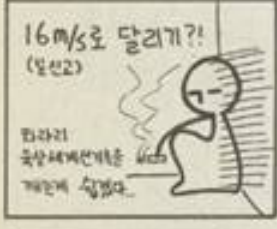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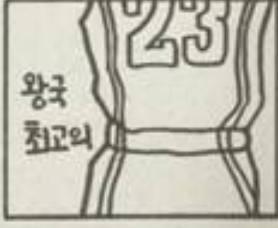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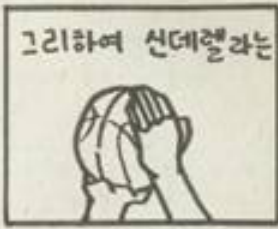
그러나...



원재나가



16m/s





신부님 시간이고 허락한 보리밭은
수확을 위해서 셋 달콤한
백설공주!!



술을 취했다 작은 도둑 한 채 낚았!
백설은 거기에 살 작정을 했을 연설이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곧 돌아갈 거예요...
그 후로 같이 살게 된 백설공주와 그 난장이
백설은 금전까지 보지 더 심한 괴롭힘이 연가게되었!!



그런데 백설은 난장이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있다!!



백설공주는
정말 사랑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는
술의 세계를 떠나서
"저녁공주"로 되돌아갑니다.

한편, 난장이들의 오독만에서는...



백설공주 이야기

나쁜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듯한 계모' 밑에서 구박받던 '착하고 이쁜 공주'는 결국 '착한 난장이'들과 '착한 왕자님'을 만나서 결국은 보답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

백설공주는 정말 진짜로! 계모 밑에서는 너무 불행했고 착한 난장이와는 행복했을까? 동화에서 보면 광산에서 일하는 난장이들의 음식이며 빨래며 청소며 양도 엄청날텐데 우아하고 행복하게 해대곤 하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집안일이 계모 밑에 있다고 더 힘들고 난장이들과 있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계다가 요즘에는 나쁜 계모가 아니라도 신부수업이다. 여자답게 이쁘게 키운다. 미다 하며 보통 부모들도 딸을 성별이분법의 굴레에 가두어 구박하던 구박을 하지 않는가 말이다.

백설공주가 계모와 난장이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딱히 강요나 압박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공주(여자)가 자연스레 집안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아마 그들은 모두 백설공주가 떠난 후 그녀가 맡았던 일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왕자라고 다를까? 어쩌면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불한방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 할지도 모르고, '착한공주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희생과 사랑을 담아 일할지도 모른다. 강요가 없어도 그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성역할구도는 그대로인 것이지. 아마 백설공주가 칼을 빼들고 계모와 그에 협력했던 신하들을 직접 숙청하려 들었다면 왕자는 어떤표정이었을까? 역시 착하고 이쁜 공주는 가슴에 분노도 야망도 있어선 안되는 거니까 당장에 동화세계에서 편집되었겠지.

난 차라리 공주가 자신의 불합리한 상황에 분노하는 그런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만화에서처럼 계모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을 발출한 용기라면 그녀는 어디서든 잘살 것이다. 왕자따위 기다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 내가 남성이길 기대한다. 이 사회가 성별이분법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나는 남성으로 범주화되어 한 이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외모는 남성이다. 나 같은 외모를 한 사람들을 남성이라고 범주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외모가 남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내가 남성이길 기대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를 절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이 사회에서 성별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 '남성'으로서 '남성' 혹은 '여성'과 관계맺거나, '여성'으로서 '여성' 혹은 '남성'과 관계맺는 식이다. 그 절대적인 밑바탕인 '성별'이 깨졌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맺어야 할지 잘 상상하지 못할뿐더러 그럴 생각조차 없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힘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그렇고, 나에게 이성애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들과도 그렇고, 과거에 '남성'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그렇다. 그 사람들은 내가 남성이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슬프게도, 또 웃기게도 지금의 나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기반으로 맺어지기 마련인 일상의 관계들이 그렇게 힘들었나보다. 간단하게는 남자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라든지 '무거운 건 남자가 드는거야' 같은 말들도 참 숨막히고, 그 이전에 남성으로서의 몸짓과 태도들을 강요하는 것도 터럭 걸린다. 나도 모르게 '어머'라거나 '썩' 같은 남성적이지

남성이라는 울타리를 슬며시 비껴선 어느 이의 이야기



www.nejo.com

않은 말투는 적절히 거친 말을 섞거나 굵고 낮은 목소리로 바뀌어야 하고 몸짓도 남성의 것으로 기다들어야 한다. 또 잘 설명할 순 없지만 남성으로서 나를 대하는 태도들은 참 난감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남자가 아니요.' '나를 남자로 대하지 마시오.'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이후의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일차적으로는 팔리고(여러 번 그런 위협을 받아왔다.) 사람들의 그 찻찻이상한 눈빛을 받고, '이상한 놈'으로 몰릴 것이다. 이 사회는 남성/여성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참을 수 없어 한다. 그렇기에 나의 고민들과 정체성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건 지난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다. 나한테 그런 일을 모두 감당하면서 친해질 만한 힘도 능력도 없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기에 난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있을 때조차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집어삼키고, 나의 일부를 숨기고, '남성'을 연기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내가 거부감 없이 받아지려면 난 '남성'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남성'을 연기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나는 비교적 최근에 의식적으로 그 연기를 시작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비교적 최근에 남성이 '연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 연기의 시작은 아마 난 기억하지도 못할 어릴 때의 일이었을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남성이라는 젠더의 규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지금의 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남성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하면 남성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의혹을 받지 않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20여년 동안 해왔던 연기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의 범주에서 이탈한 괴물같은 어느 존재가 남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를 해왔다는 말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성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남성'이라는 범주 자체가, '남성'이라는 정체성과 '남성'이 용당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실 지금에 와서 난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이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모르겠다. 페니스가 있는 사람은 남성이다? 아니다. 그 말은 특정 모양의 생식기를 '페니스'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남성의 성기'로 의미화하고, 그것에 따라 개인들을 '남성'으로 분류하고 훈육하는 성별이분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말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별이분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의 성별이분법이 페니스라고 불릴만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이를 남성으로 만들고, 나도 페니스라고 불릴만한 신체기관이 있기에 남성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자는 페니스가 있는 사람이다.'와 '페니스가 있는 이를 남성으로 범주화하여 남성을 수행하게 한다'는 다른 말이다. 남자는

곧 페니스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나는 '남성'을 연기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 페니스가 있다고 모두 남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며,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성을 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남성성이 의심받았을 때는 페니스와는 상관없이 남성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 행동, 태도, 관계를 남성이라는 범주 내에 들게끔 다듬고, 남성으로서 허락되지 않는 경험들은 변형시키고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험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게이 같다' '느니 이상하다' '느니 남자 맞냐' '느니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해야 하는 사회에서 여러 방식으로 밀려나게 된다. 남성'에 포섭되지 않는 나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았다.

언제부터가 나는 나를 남성으로 정체화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나를 여성으로 정체화하지도 않는다. 그냥 남성을 벗어난 어느 위치 즈음에 있다는 느낌이다.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남성/여성으로 모든 인간을 나누는 성별이론법 하에서 이십여 년 간 남성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금은 그 경험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남성이고 싶지 않고, 남성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까. 아직 잘 설명하지도 못하겠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서 뭐라고 명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남성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남성이라는 위치가 싫었다. '싫다'라는 말이 나의 감정과 경험을 모두 설명해줄 수 없을 테지만 아무튼 싫다는 감정이 먼저였다.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규범도 싫었고,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성격과 습관, 욕망, 행동들이 싫었고, 남성의 위치에서 맺는 관계도 싫었다. 남성으로 살아왔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남성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지난 후에 내가 지금껏 수행했던 남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었는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난 그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 것 같다. 내가 남성으로 살아왔던 경험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되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남성성을 성찰하게 되면서 나는 어찌보면 자연스럽게 남성이라는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고 싶었다. 남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묻혀졌던 나의 경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나의 소소한 몸짓들, 말투들, 행동들을 남성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밀쳐내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고, 남성의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묻혀져 있던 나의 기억들을 끄집어내 보듬어주고 싶었다. 기억나지 않았던 크고 작은, 희소성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경험들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가 혹은 내

가 어떻게 그 경험을 삭제해왔고 내가 어떻게 나를 '남성'에 맞추려고 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경험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롭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다른 이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할 때 움츠러드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다. 남성이라는 틀에 맞춰지지 않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싶었다.

지난 학기에 난 이대의 어느 여성학 수업을 수강했다. 교수님에겐 죄송하지만 수십 시간의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은 의외로 영동한 곳이었다. 이화여대생이 아닌 학생은 나 혼자였고, 내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나기에 나는 굉장히 뛰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나에게 관해 이야기를 하며 연세대학교에서 온 '남학생'인 나를 그냥 단어 한마디로 '남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성'으로 간주해보자고 말하셨다. 남자라고 그냥 남자라고 하지 않고 남성이라고 '간주'해보자는 제안이 웃겼는지, 그 순간 다른 많은 '여학생'들은 웃었다. 하지만 난 나와 친하지도,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줬다는 것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었다. 나는 교수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했고, 교수님도 내가 평소 어땠고 믿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테지만, 다른 이가 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지해준 그 때의 경험은 나에게 참 소중한게 남아 문득문득 힘이 된다.

사실 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참 행복하다. 이 글은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나 격려 같은 것이다. 니가 이상한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또 네게 뭐라고 해도 움츠러들지마, 너를 죽일 필요도, 너를 '남성'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어.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잖아, 힘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난 참 좋다.

물론 이십여 년간 남성으로 살아온 나이에 '남성'이라는 범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거나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 남성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도 남성 규범에 포섭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남성에서 벗어난 욕망을 실현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아직도 나의 옷장 안에는 한 번도 입지 못한 남성용이 아닌 옷들이 잠자고 있고, 혼자 있을 때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나의 비밀스런 욕망들도 있다. 하지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조금씩 괴로우면서 또 괴롭지 않게 나를 긍정해나가면 되는 거고, 달라지면 되는 것일 테다. 많은 이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더 길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괜찮을 테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테다.

by 그레오 내 이름은 수업



www.nego.com

X야 안녕. 내 얘기 들어줘

주만등록번호가 2로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들 아무 부대낌 없이 늘 '난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야. 겉모습이 여자처럼 보인다고해서 여자인 것도 아니지. 그런데 날 보면 사람들은 여자구나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내가 나를 여성으로 생각한 적은 사실, 음... 최근에 빼고 거의 없었던 거 같아. 지금이라고 날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나 하면, '뭐 여성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 같으니까 여성 하지 뭐.' 거의 이런 수준. 많이 인지하며 살지는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난 내가 남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들리고 싶지 않았어. 분명 사람들은 날 여자라고 볼 텐데, 내가 남자라고 하면 이젠 무슨 괴물이 되는 거 같잖아. 내가 왜 날 남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고, 여성스러워야 여자인데, 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난 남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이런 건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니까 이걸 들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난 여자인 척 연기를 열심히 했고, 난 꽤나 성공적으로 연기를 수행해 온 것 같아. 물론 여성을 연기하면서, 갑갑하고 짜증나는 것도 많았지. 여자니까 여자답게 이래라 저래라 싶은 게 많았지.

난 운동하는 게 좋고, 잘하는 것 같은데, 여자라서 운동을 할 기회도 적고 이걸 마음껏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물론, 아 나 체육시간 좋아 운동하는 거 좋아, 말은 하긴 했는데, 왠지 조심스러웠고, 이상한 욕망을 말하는 거 같았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라는 한 때 있었던 이 욕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이런 건 다 내가 남자라는 걸 들리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 같아. 남자들이 한다는 놀이들, 총 쏘기, 갑싸움, 딱지치기 등등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지. 여자애들하고 이런 놀이를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남자애들하고 스스럼없이 막 어울려 노는 여자에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난 그냥 좀

조용한 편이고, 차분하고, 공부 잘하는 편인 그런 여자애로 통했기 때문에, 난 여자연기를 잘 수행해온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칭찬할 때는, 나의 여성스러움에 대해 칭찬했지 나의 남성스럽다고 여길만한 점을 칭찬한 적은 없어. 속으로는 사실 나의 이런 모습이 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외의 모습을 보여줄 자신은 없었지.

중학교 때는 내가 가슴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그래서 내가 여자가 아닌 건가 걱정했었지. 또 생리를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한 편인데, 생리를 아직 하기 전에도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인가 걱정했어. 생리를 시작했을 때 어찌나 안도했는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마다, '그래 나 여자였지.', '나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 나에겐 '내가 여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과 이 생각이 진짜 사실일까 봐 걱정했던 면이 동시에 있었던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애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외모관리, 여자애들이 좋아한다는 순정만화, 여자애들이 좋아한다는 남자연예인/남자애들 등에는 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난 별로 청결(?)하지도 않고, 글씨도 깨끗하게 쓰지 못하고... 난 운동하는 게 좋았고, 뽀빠 되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중세시대 말 타고 칼 쓰는 기사나, 영국 대공황시대의 신문팔이 소년... 왜 이런 로망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되고 싶다는 로망 정도는 있었지. 역사공부를 좋아한다는 것도 별로 여성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지. 그나마 외국어공부는 좀 여성스럽다고 느껴지는 편인가?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여성적인 취향이라고 여겨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았어. 그러다가 중학교 끝나갈 때쯤에 '아 그래도 여성적인 취향이 하나 있는 거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를 좀 좋아한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전환용으로 볼 수 있는 영화로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한다는 거, 아 그리고 온스타일 채널을 재미있게 본다는 거, 이게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취향이구나 싶었어.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자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았고, 이것이 '아 그래도 내가 여자구나, 드디어 안정적인 취향, 즉 여성적인 취향을 갖게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 같아.

암마 전에 중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애가 날 그다 여성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어. 난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라고, 뽀빠 살짝 기분이 좋았던 것도 같아. '난 내가 여자연기 수행을 매우 잘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단 말이야? 내가 연기만 하면서 산 것은 아니고, 내 욕망을 좀 따는 것도 있었던단 말이야?' 이런 생각에 좀 좋았던 거 같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애의 맥락은, '이성연애를 할 만큼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적은 없는 거 같아' 라는 말이었다면... 그치, 난 이성연애에서 요구하는, 정말 이상적인 여성성까지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남성스럽다' 라는 말을 안 들을 정도

로만 연기를 한 거 같거든. '남성스럽다'는 말을 피하기 위해 여성으로 여겨지기 위한 연기를 했던 거 같거든. 돌이켜보면, 난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별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편리함에 이유를 두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같아. 이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나한테 안 맞는 거 같고, 내가 원하는 건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건데, 그게 남성적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난 헬스다는 운동화가 편하고 발 건강에도 좋으니까 운동화를 신는 거야 라고 보이려고 했어. 치마보다는 바지가 활동하는 게 편하니까 바지를 선호하는 거고, 백팩이 어깨로 매는 거보다 어깨도 덜 아프고 편하니까 백팩을 매는 거야 생각을 하고, 근데 잘 보면 웃기지, 이렇게 건강하고 좀 더 편리한 것들이 더 남성적인 걸로 여겨지잖아.

근데 내가 날 남자라고 확신하며 살았나? 이걸 절대 아니야. 내가 확신을 갖고 날 ftm으로 정체화했던 순간은 없는 거 같아. (ftm으로 정체화할 때 반드시 확신-이건 불변치 않을 절대적 진실이야! 류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난 날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 맞아, 분명히 '난 여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했지. 그 날 웬지... '난 여자다' 이것보다 '난 남자다' 이게 더 맞는 말인 거 같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었지. (여자 혹은 남자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면 말아야.) 하지만 난 늘 여자로 통했고, 여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하며 산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생기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날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있지. 또 이 사회에서 남자이면 생기게 되는 특권들을 내가 동경했던 점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성찰하기도 했어. 또, 내가 날 남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근거들은 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스러움이나 남성스러움과 관련이 있었어. 여자면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자면 남성스러워야 한다는 그 취약한 관계에 말이야. 내가 여성스럽지 않아서 남자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굳이 날 남자로 정체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지. 그리고 싶은 욕구도 조금 사라지게 되었고.

어쨌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나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들은 계속 변화해왔어. 대학교에 와서야 혹은 누가 날 남성적이라고 평하는 것에 대해 예전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서, 남성적이라고 평해졌만한 내 욕구를 좀 더 드러낼 수 있게 되었지. 예를 들면, 머리를 짧게 자른다가, '여성스럽게' 꾸며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들.

다시 처음부터 정리. 처음에는 남자로 정체화하는 게 사실 많이 무섭기도 해서 정체화하려는 노력을 피했던 거도 있어. 그리고 이런 나의 고민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연기했지. 하지만 다시 살아가면서, 또 나의 욕구를 성찰해가기도 하면서, 굳이 남자로 날 정체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여성스러움'은 나에게 연기가야. 예전(고등학교 때까지)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여성스러우라고, 집에서, 특히 학교와 또래집단 사이에서 강요받았기 때문에 지나고 싶고 힘든 연기였어. 그런데 대학에 와서는 좀 해방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지, 여성스러움을 내가 원할 때 연기하는 건 좀 재미있는 면도 있다는 생각을 요새 하기도 해. 가끔 내가 원할 때 연기를 하는 건 재미있다 이거지.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그냥 살다보면 나에게 여성스러움이 강요되는 상황이고, 이 사회에서 여성스러움은 남성스러움에 대비되면 좀 더 열등하게 여겨지잖아. 그런 상황에서 여성스러움을 연기하는 건 즐겁지 않지. 게다가 그럴 때는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스러움 기준치에 잘 부합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고.

근데 그러면, 여성스러움을 연기하는 게 아닌 순간은 그럼 뭘까...? 내가 여성스러움을 연기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그럼 뭘이 되지? 음..... 막히는군. 그 순간이 바로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순간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거 같단 말이야. 그것도 연기일까. 남성스러움을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걸까? 근데 그때는 내가 '강요' 받아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느껴. 그리고 내가 '이게 남성스러운 행동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성스럽지 않으면 사회에선 남성스러운 거라고 평하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여성스럽다고 평가될지 혹은 남성스럽다고 평가될지는 사회적으로 다 예측가능하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사회에서 어쨌거나 정해놓은 틀 중에서 내가 취사선택 하는 건가.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역할을 취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편찮은 거 같은데. 모두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역할을 취하게 되면, 성별에 따른 위계도 없어지게 되려나? 결국 성별에 따른 역할이라는 것이 와해되고? 아 그러면 좋겠다.

by 내 얘기를 쓰러니 머리가 글썽 모화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재미있긴 하다. 역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베로니카



3x!FTM

쓰리
에프티엠

안녕! 여성제를 즐기는 나와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그에 앞서 난 <3x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라는 다큐멘터리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다큐멘터리 <3xFTM> 제작과정에서 세 명의 성전환 남성들과 함께 한 인터뷰를 글로 묶어 낸 결과물이다. 출생시 해부학적 여성육체에 따라 부여 받은 성과는 달리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3명의 성전환 남성들, ftm(female to male) 고종우, 한무지, 김명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단체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인데 기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되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곧 성적 소수자이기에 이들을 위한 여성주의적 삶과 문화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에는 상영기획단이 조직되어 올 6월에 한국 최초의 ftm에 관한 영화로 공식 개봉됨으로서 다양한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다. 섹슈얼리티 운동 진영 및 성적 소수자와 일반 대중 양쪽 모두를 관객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경계 같은 다양한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상영과 관람 자체가 ftm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함께 다루어볼 만한 이슈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참여이자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글을 읽고 ftm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접하게 된다면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제를 함께하는 당신은 ftm의 이야기를 통해 X 되기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보았고, 이번 여성제를 준비하며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과 두 번째의 인상과 느낌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의 일상에 순간 당황했고 단순한 호기심을 느꼈었던 것 같다. 반면 두 번째로 그들을 만났을 때는 나 자신부터가 답답한 상태였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되었다. 책 자체도 F, t, M의 세 가지 키워드를 축으로 하여 과거의 재구성, 성전환의 과정과 수술경험, 남성성과 남성으로서의 관계에 관한 성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정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느낌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설명하고 긍정하는 언어, 수없이 싸우면서 쌓아온 언어의 진정성이 끈끈이 엉겨붙어 있는 느낌이랄까. 주저, 혼란, 정말이지 한 쪽에 밀어두고도 싶었고,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고도 싶었지 않을까 싶은 시간이 흘러간다.

그 시간이란 여성에서 남성으로, 어 어 어, 지금이야! 하고 단박에 뒤집어지는 순간이 등장하고 그걸 함께 축하해주는 식으로 의미를 지니거나 완결되지 않는다. 세 청년은 해부학적 여성육체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성전환에 대한 욕망이 다르며, 해부학적 남성육체와 사회문화적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 정형화된 루트나 관념에 의해 ftm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요약은 없다. 세 청년은 비성전환 남성과 구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비성전환 남성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성전환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간극을 성찰한다.

나 역시 기존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여성육체와 여성이라는 위치를 통한 경험에서 그들의 삶과 교차하는 것이 분명 있고, 비슷하면서도 확연한 차이들이 있다. ftm 트랜스젠더의 삶과 욕망을 상상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은 곧 나의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해석하고 되돌아보는 일이었다.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반전, 쾌감, 절망, 맥이 탁 풀리는 순간들이 나에게 속 시원하고도 아팠다. 이런 느낌들이란 젠더 이분법으로 발생하는 여러 차별과 억압의 지점을 공유하는데서 생겨나는 것일테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성전환자와 성 소수자 인권운동을 고민해보는데 의의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게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지만,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의 성/별정체성, 여성/남성*여성/남성. 이 2X2 매트릭스 위에서 금 밍지 않고 서 있긴 힘든 것 같다. 모두 약간씩 불일치하고 어긋나있고 to, toward, transition 중이고 결국은 젠더규범 속에서 남성이 되기를 열망하거나 여성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무엇이, 우리들을, 열망하게, 만드나.

2000년대 초반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등장한 이후부터 트랜스젠더는 게이, 레즈비언과는 구분되는 정체성으로서 가시화될 수 있었다. 성적지향과 관련된 동성애 정체성과 차별화되어 트랜스젠더는 젠더 정체성에 관한 정체성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젠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대중들에게 트랜스젠더를 동성애와는 차별화된 존재로 인식케 하여 그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지만,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젠더 정체성에만 국한된 정체성으로 파악하게 만들으로써 내부의 이성애 중심주의를 묵과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재의 가시화 형태는 특정 고정관념에 맞춰 트랜스젠더의 삶을 일부만 가시화함으로써 더욱 왜곡된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척도로 삼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트랜스젠더 논의의 활성화 자체가 그들에게 억압적인 모순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국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정상 속의 정상성은 계속 재생산되고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2008, 김준우)

이와 같이 성전환 남성은 여성 젠더규범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남성 젠더규범을 과도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중의 무게에 시달린다. 성전환 남성들은 남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데 비성전환 남성에 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그 한 과정으로 해부학적 여성 육체를 은폐하고 남성의 육체를 조형해야 한다. 이 일이 그들을 더욱 압박하는 이유는 여성이었다는 과거가 밝혀지면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트랜스젠더로서 형성해온 고민과 맥락, 지향하는 바가 모두 부정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남성으로 여겨졌던 부분도 비성전환 여성으로서의 부분으로 치환되고 왜곡되어 버린다.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었다", "남자로 보이고 싶었다", "남자가 되어야만 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진술의 맥락들이 막상 사회에서는 존중되지 않는다.

사회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가 없었을 거예요. 전 ftm들이 가지고 있다는 과잉행동, ftm이 과잉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잉행동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신체가 여성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게 아닐까 싶어요. ftm들이 자라 온 과정이 비성전환 남성들과 다르니까, 남들 눈에는 여자처럼 행동해야 될 거 같은데 남성처럼 행동하니까 과잉행동이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몸이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리 보여요.

정체성, 성/별정체성은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인



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나는 이러저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몰랐더라면, 알았더라면, 180도 다르게 느끼고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된다. 내가 나라고 믿는 것조차도 불확실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크고 작은 기분들과, 사소하고 중요한 결정들과, 만나고 관계 맺고 헤어지는 사람들과, 유년과 청년과 미래를 편하게 만는, 단정적이고 무삼하기 짝이 없는 장치가 엄연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아아, 작동하고 있다. 동의하지도 선택한 적도 없지만 여성의 혹은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따라야만 하는 것. 성기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에 젠더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가 맞닿아 있다. 왜 나는 그런 식으로 껍데기가 씌워지고 분류되는데 아무 말도 못했고 거기에 무슨 말 같은 게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나.

이 장치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내부에서, 만인 앞에서 거부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재구성하고 긴장이 삶을 사로잡는다. 그 안으로 침투할 수 없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구분은 삶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ftm의 경우 성기가 그의 젠더에 관해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셈이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젠더규범에 어긋나서도, 모순되어서도 안된다는 더 강한 압박을 받는다. 성기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지, 성기가 없는 것처럼은 절대 안돼.

회사에서는 저를 간성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에 '간성입니다'라고 써서 이력서를 내고, 수술도 다 했다고 얘기했고, 그 이력서를 토대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이 됐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와 간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웃긴 말인데, 간성은 용서가 돼도 트랜스젠더는 용서가 안 돼요. 나중에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남자로 알고 뽀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더라."

간성이란 여성과 남성 양쪽 모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지칭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와 부모의 선택에 의해 어릴 때 양쪽 중 한쪽을 제거한다. 그리고 간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본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간성으로서 스스로를 긍정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젠더와 정체성이 불일치하거나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간성이 여성의 몸에 남성의 마음, 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구도이고, ftm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보다는 혼란의 여지가 적은 것 같다. ftm들은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ftm이라는 걸 감춰야만 '완전한 남성'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완전한 남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삶, 단순하고 진실한 올림을 가진 말. 그러나 이 시도를 끝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 세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낸다.

나는 비성전환 여성으로서의 나의 경험(원했던 혹은 원하지 않았던)을 ftm의 경험에 계속 투영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깊이 남아있는 건 해부학적 여성육체에 대한 발언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부대껴하고 들어버리려고 한다는 걸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부대껴하고 있었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성으로서 여성의 육체를 가졌다는 것, 남성의 육체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백 프로 싱크로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눈으로 나의 몸을 볼 수 있었다니,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나, 우리 할머니 말씀따라 뭐만 하나 달고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아도 됐을 텐데. 나는 내 생애 티 한 장만 입고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수술이 어떻게 보면 나를 바꿔 놓기도 했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아무튼 좋아요. 쿼터 퍼레이드 때, 백주대 낮에 길거리에서 옷통을 벗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내 가슴이 남자가슴으로 보일까. 그런 망설임이 있었던 거죠. 내 가슴이 ftm의 가슴이라는 걸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수술 하지 않은 가슴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나는 옷통을 벗을 수 있는 남성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옷통을 벗었을 때 옆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요하더라고요. 해방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랑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 같지 않은 뭔가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고 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가슴하고 젖꼭지를 유심히 봤대요. 다행히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가 확인해 봤는데, 젖꼭지랑 가슴을 봤는데 이 사람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동굴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제 특정부위를 계속 집중해서 쳐다봤다는 건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었어요. 남자들은 가슴이 있나 없나 남자인지 여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직업학교 후배 기수 중에 좀 동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가슴이 여자같이 많이, 아니 여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친구는 남자인가 가슴과 배가 울퉁불퉁하게 나왔어도 자신 있게 풀티를 입고 다녔어요. 그 걸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있어요. '아, 저 친구는 남자인가 저런 가슴을 가지고도 저렇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구나' 하고요.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이 따로 있고, 그 경계가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매우 취약하며 가장하고 흉내내고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의 가슴, 브래지어, 비키니라던가,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선들,



욕망들이 덧칠된 하나의 강력한 예이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런 예는 이 책 속에 무수히 많다.

이제 와서 보면 당신이 좀 더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라는 건 자기에 대해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당신을 표현하는 말은 대체로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다. 머리를 짧게 치거나 옷을 좀 다르게 입으면 스스로가 바뀌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트레이닝바지와 미니스커트의 차이! 그래서 고교소녀들은 열심히 치마 속에 바지를 끼입는 게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실험삼아 나는 남자다, 라는 암시를 주며 생활해 보았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남자 같은 건지 아니면 그저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결국은 남성들을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은 곧 그동안 내 시선의 영역에 남성들은 별로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여성들을 주로 관찰한다. 수많은 모델들의 사진을 잡지에서 보고,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여배우들을 보고,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수많은 그녀들을 훑쳐본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 둘의 시선으로 나뉘어져 이중적인 시선으로 그녀들을 본다. 그녀의 여성성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각각 어떻게 어필할지, 컵대기의 양면적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구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역전될 수 있다. 해체될 수 있다. 당신도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 자신으로서의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한번도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내 경우는 여자로서 여성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다. 분홍과 초록과 파랑의 스펙트럼 속에서 중립적이고 치우치지 않기, 가장 무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건 종속되지 않기 위한 나의 작고 힘없는 노력이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자기에 대한 폐쇄감이나 걸돈다는 느낌은 지속되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그게 젠더규범과의 불일치라고 뚜렷이 의식하지 못했었다. (물론 이것만이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여자라는 걸 딱히 싫어해본 적은 없는데도,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아주 귀찮았다. 적당히 외면하고 지냈는데 대하에 다니고 연애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맞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처음엔 내가 여자로서 대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

대! 이전 아주 중요하다. 그 이후에 여자를 가장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먹힌다는 걸 뒤이어 깨달았으니. 어딘가 발육되지 않은 것 같던, 이를테면 미성년, 더 나아가 중성으로 보이는 분위기를 탈피하고 싶었다. 근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내가 남성을 사랑하려면 여성으로서만 사랑할 수 있었다. 혹은 내 안의 여성성으로는 여성을 사랑할 수 없었다. 서로가 상대방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만 결합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서 또 새로운 관계들의 몫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그 새로운 관계들 역시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우리가 쉽게 우정이다, 연애다 하고 분류하는 감정들이 사실은 무수하고도 모두 다른 관계들이었을 텐데, 여성성을 강요당하지 않았을지언정 자발적으로 그런 몸이 되었고 그 몸은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너무도 어색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성적이어야 한다니 코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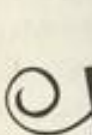
적어도 나한테 사랑은 또다른 중요한 문제여서 그러저러하게 넘어가거나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을까. 결국 연애도, 인간관계도, 가족도 성기결합의 은유로 뒤범벅되어 있을 뿐인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가봐야 하나? 3xFLM의 낯선 경험과 욕망을 자기의 경험과 욕망 속에서 재해석하고 투영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그건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은 옷을 걸치고 걸어보는 일이었다. 막 벗겨내 무두질 하지 않은 가죽 같은, 질기고 축축하고 싱싱한 나무껍질의 냄새가 나는 걸옷을.

고정되어있는 수사들을 통해서 규정되고, 경계 지어지고, 압축적으로 표현적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한다. 나는 그가 나를 완전히 욕망하기를 바래. 그러니 나를 더 욕망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자. 하지만 그의 취향을 추론하는 건 실패할지 모르니 그가 남자라면 나는 여자, 그가 여자라면 나는 남자가 되자. 그러나 욕망은 아주 예기치 못한 방식이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미래나 과거에 가깝게 그러할 수도 있다. 욕망했던 것과 욕망하고 싶은 것이 뒤엉켜 있다. 미래의 욕망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미래의 욕망에 매혹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옮겨가고 형태를 바꾸고 돌 밑에 숨어버리는. 그래서 여자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의 X들, X의 모방 불가능한 구현들. 겉모습은 잠시 잊어버리고 내부의 펄스를 끝까지 돌려 열어 신기루처럼 겉으로 비치는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듯. 그건 완전히 다른 모습일지도 몰라. 입상에 노출되어 딱딱하게 그슬린 겉모습은 안의 모습이 강렬할수록 최소한으로 줄어드는지도 몰라.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일그러져버릴지도 모른다. 익숙했던 사람들이 나를 못알아볼 정도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을 할 것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나와 당신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바란다.

by 파랑계사랑해파랑계 별



관계 상상하기,



관계 설명하기



이성애중심주의는 상상력이 빈곤하다. 모든 이성(으로 추정되는) 관계에 있어서 애인이 겹거나 마음대로 추측하고, 모든 동성(으로 추정되는) 관계에 있어서 친구 겹거나 단정지어버린다. 문제는, 그 부족한 상상력이 권력이 되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경험들과 모든 관계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해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비성애적인 성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험을 이성애적인 틀에 맞도록 포장하거나 숨겨야 한다. 그렇게 억지로 애를 쓰고 써도 이성애자로 위장시킬 수 없는 비이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이 이성애중심주의의 사회는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러니, 이성애중심주의의 틀 안에서는 백만 년을 살아도 관계를 제대로 고민할 수가 없다. 친구라면 그냥 '친한 (동성의) 사람', 연애라면 그냥 '성애적인 감정을 나누는 (이성의) 관계'라는 소름끼칠 만큼 간단한 설명 이외에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를 설명할 만한 구체적인 언어를 주지 않는 것. 이성애중심주의는 나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 내가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스

● 마음대로 누군가를 위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확신도 느끼지 않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체성을 위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필요한 경우에 숨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이성애자이기만 강요되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고 끊임없이 존재하고 발생하고 재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비이성애정체성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려야 할 것으로 비가시화된다.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일, 마,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스스로 정체화하고 있는지는 털끝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기억은 재구성되기 마련이고, 그 기억들에 의미 부여하는 방식은 내 정체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도 말이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것을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비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것을 끈덕지게 '권유'하고 마는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며 성적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일관한 사춘기적 감상으로 치부하고 마는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 그런 이성애중심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는 '멋진 우정'을 '사랑'으로 오인한 이들이며, 양성애자 혹은 Questioning은 이성애자인데 가끔씩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고, 무성애자(asexual)는 아직까지 남자/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이들이다. 왜냐? 이성애중심주의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니까, 모두의 성애적인 관계란 이성애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성적정체성이란 단 하나, 이성애정체성일 뿐이며, 그것은 타고 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이성애중심주의에 찌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이성애자' 이길 바란다.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긴 하는데 이해는 못하겠어 라고 비이성애정체성에 '관용'을 베푸는 척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한 번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영원히 동성애자' 이길 기대한다. 전자와 후자의 맥락은 다르지만, 성적정체성이란 고정되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진 '당연'한 일이자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모두가 이성애자일 거라고 여기는 이 사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이성애적인 경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주입되고, 설사 그러한 기억들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애적인 틀에 의해 '우정'으로 포장되거나,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워진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에게 이 사회에서는 이미 '비정상'의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이성애 성애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비정상'인 사람이 '정상'의 범주를 침범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이성애자로 결국 돌아선 '길 잃었던 어린 양' 정도로 본다.

● 이성애자 라고 단순히 쓰기에는 성적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가능성마저도 지워버리고 있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평평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적정체성은 하나이며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인지. 정체성이라는 건 고정되어있지도 않고, 그걸 마음대로 누군가가 결정해버리고 고정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정체화의 과정은 관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나의 방식으로 고민을 풀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정체성은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 대한 총체적인 물음, 내가 삶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무수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성적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이성애자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이성애를 너무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라는 범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할 단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비이성애자의 경험은 어떻게 비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성애자 내부의 차이는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러므로 아무런 고민도 하지 말라고, 정해진 대로 살라고 이성애중심주의는 강요한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나를 '위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횡포가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겪은 정체화의 과정을 자기 멋대로 부정해버리는 횡포.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이성애중심주의가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성적정체성을 이성애 정체성으로 등치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하다. 내가 겪어온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성애정체성만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제한적이고 일률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정체성만이 강요되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성애와의 연애관계 혹은 동성애와의 우정관계로 제한되어 해석되는 것이다. 비이성애정체성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하고, 낙인찍는 폭력적인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상상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언어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말이다.

예컨대, 같은 관계라도 내가 정체화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내게 각별한 동성의 친구가 있었다고 상상해보자. 그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라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 각별한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은 내가 어떻게 정체화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에 의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사는 내게 그 관계는 '로맨틱한 우정'이었을 수 있다. 혹은 성애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나 스스로는 이성애자로 정체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매 순간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드러낼 수 없겠지만 이성애중심주의를 탈피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성애자가 되었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설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무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사는 내게 그 각별한 동성과의 관계 역시 성애적인 것이었을 수 있다. 그 관계를 성애적인 경험으로 해석하고도 나는 왜 무성애자로 정체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관계는 나에게 친밀함의 어떤 형태, 그러나 성애적이지는 않은 무엇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나는 내가 성애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사는 내에게는 그 각별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연애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친밀함을 쌓는 성애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성애자인 내가 앞서 그렇게 해석했듯 '로맨틱한 우정'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명명할 때 나는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로맨틱한 감정들을 갖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사는 내게도 비슷한 가능성이 있을 테다.

Questioning으로 정체화하고 사는 내게도,

물론 각별한 이성친구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다. 내가 언급한 가능성들은 현재 내가 갖는 정체성으로 어떻게 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 상상한 것일 뿐이다. '로맨틱한 우정'이 아닌 다른 이름붙이기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내가 살면서 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혹은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혹은 Questioning에서 동성애자로, 혹은 그 반대로, 혹은 무수히 가능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언어들이 이 관계에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 정체성이 다양할 수 있는 만큼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성애중심주의 사회 안에서 주어진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는 참으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사람들은 '이성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나'만을 가지고 논쟁하고, 이성과의 연애관계에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요구한다 (혹은 그 반대도 빈번히 일어난다). 우정이나 사랑이나, 둘 밖에는 없다. 사랑이란 '여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는 성애적 관계만이 전유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건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성애의 방식을 '여성'이 지닌 '여성성'과 '남성'이 지닌 '남성성'의 조합으로 한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정'이라는 관계의 기반은 '동성'이라는 전제로 다져진다. A와 B가 똑같이 여성일 때, 혹은 남성일 때 둘은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규범을 내재화하고 세상을 그 규범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둘에게는 친밀해질 수 있는 '달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성애중심주의는 설명한다.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고, 상대방의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떠한 점들이 나와 잘 맞아서 친밀함을 느끼는지는 천차만별인데, 이성애중심주의는 참 편리하게도 그것을 친구와 애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무성적인 것과 성애적인 것의 경계를 가르고, 그게 모든 관계의 핵심인 것처럼만 말한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똑같이 친구나 애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찰해야 할 권력은 없는지, 그 모든 고민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져버리기 일쑤다. 그건 앞에서 '기린'이 쓴 글에서와 같이 슬픈 일이고, '파니'가 쓴 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성애중심주의의 '어장'에서 양식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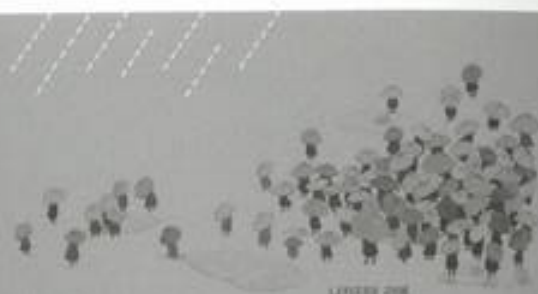
관계에 대해서 상상하는 건 신나고, 그 관계를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내가 맺게 될 관계에 풍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고 해서 마음먹는 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왜 관계의 가능성을 달아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성애중심주의의 권력이 도대체 내 일상의 어디까지 뻗어있는지를 직시하지 않고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다. 이성애중심주의가 누구를 비가시화하는지, 누구를 배제하는지, 어떤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 빈곤한 상상력을 가진 이성애중심주의의 무시무시한 권력에 반기를 들자! 그렇게 하면 조금씩 조금씩 공고해 보이는 이성애중심주의에도 틈새가 생겨날 테고, 거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을까.

by 달 이성애중심주의를 꿈꾸는 창세

기획단 후기



- 어느덧 또다시 여성제 시즌. 시간 참 빨리 간다. 하하. 우리가 이렇게 할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회의와 수다와 노닥거림 속에 성장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여성제로 공간을 피워 내고, 그렇게 일상을 피렁여질 줄 알 수 있...겠지? 두근두근 기대된다. 그리고 행복하다. - 루
- 이번 여성제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다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주어서 신나고 즐거웠다. 준비하면서 더 고민하고 나의 경험과 욕망을 성찰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벌써 가을이 오고 창밖은 캄캄해졌고 마음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기분은 좋다. X들의 잔치가 될 여성제 기대된다. (말투가 왜 이렇게 되나 몰라. ㅋㅋ 이렇게 써지니 그냥 이렇게 쓸란다.) - 러임
- 기획단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다들 믿음직스럽고 너무 이쁘다. 너 혼자서 X를 상상하고 X에게 말하고 X가 되어보라 했다면 아마 난 공방 포기했을걸, 같이 만들어간다는 것이 좋다. 나에게도 이 촉제가 무지한 용기를 주었다. 나의 성은 X다. 나는 X다. 그래 나는 X다. 다른 기획단에게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다들에게 이 촉제가 든든한 바탕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발췌하면 좋겠다.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다. - 파니
- 여성제가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 설레. 그리고 X야 사랑해. 꼭 - 기린
- 용어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한 또 다른 배움목이었단 이곳. 우리의 반짝반짝 빛나던 기억을 되새기며 내리쬐던 햇살보다 더더욱 눈부시게 가연될 여름. 그리고 가을을 바라보는 나. 좀 더 자라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아진 가을이 되길. 더 많은 X들을 만나게 되길. - 숲
- 여성제를 왜 준비하게 되었을까 떠올려보았다. 잘 생각이 나진 않았다. 그냥 어떤 형태로든 함께 이끌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힘이 특하면 꼭 쓰러질 듯 나약한 나를 점점 자신있고 강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 다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획단 한명한명의 예쁜 마음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 잊지 말고 늘 피어날리며 살아야지. - 갈매기
-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과 저녁밖에 없는 여름을 보냈다. 부엌부엌, 청소를 치러보니 가을이다. 가을엔 뭐니뭐니해도 여성제! - 별
- 거의 중동진/호기심만 으로 참여한 여성제-기대기대기대!!! 예압 베이비. - 갈동



여성제 시즌

- X를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X를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아침잠심자네 X를 세번만부르면 자연스레웃음이나올것이야
만들어지 말고 right now
call me touch me with me everybody
난 너를원해 난 너의 마음을 위해 비로지금 두려워하지말고 X를 불러봐
신나는일이생길꺼야 즐거운일이생길꺼야 행복한일이생길꺼야 놀라운일이생길꺼야 - 나무
- 여성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X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 갑갑한 사회에서 X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빛나는 X들이 함께 있기에 어떻게든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달리
- 1. 내가 정말 할줄 몰랐다. (300%)
2. 그렇지 과학파인 밑지매 의심은 좋은일이야! (웃)
3. X의 계절은 성큼 다가오고, 생지한 내미음영 전경6개가 남을로 0.0 - 울
- 즐겁고 불리한 축제- 달콤달콤한 축제-
나의 귀차니즘을 재확인한다면 이미 난 축제-
함께 라는 것은 역시나 설레고 가슴 요근해지는 일이었어-
라고 다시 재단게 해준 X들에게 감사-
진짜 축제는 이제 시작이야- 여성제- 동-서-아보
- 여성제를 한다는 건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장맛이지 이할줄은 몰랐다.
여성제가 참 고맙다. 여성제도 고맙고 같이 준비하는 기획단들도 고맙고 다 고맙다. - 수영
- 발광발광 조심스레. 하지만 조금씩 더 해학성이 그대들과 X와 만나는 것이 설레어왔음 - 행

제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갈매기 (법학 05)
기린 (주거환경 08)
갈동 (응용통계 05)
나무 (간호 06)
달리 (행정/영문 04)
러임 (사회학 08)
루 (정치외교 06)
마쓰 (법학 04)
미지 (사회학 06)
별 (철학 07)
샬 (건강전자 08)
수영 (영어불문 07)
울무 (사학 07)
행 (행정 07)
파니 (사회학 06)